

● 발행처: 한국아나뱃티스트펠로우십(Korea Anabaptist Fellowship) ● www.wkaf.net ● 발행인: 전남식 ● 편집장: 김복기
● 편집위원: 배용하 한준호 권세현 ● 발행일: 2015.3.31 ● 창간일: 2012.11.17 ● 주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양춘리 520
● 전화: 070-4027-2200 ● e-mail: byh1424@gmail.com ●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신청해주세요.

편집인의 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

어느 새 두 사이클이 돌았습니다. 이제 9호를 발행하니 세 번째 사이클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힘차게 시작하다가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열정이 서서히 식게 마련입니다. 한국 아나뱃티스트 저널은 그다지 힘차게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한 해, 한 해 호수를 더해가면서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이 생기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아나뱃티스트 교회들이 따뜻한 소식을 전해오고, 또 읽는 독자들이 그 소식에 힘을 얻고 반응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복기
(캐나다메노나이트선교사)

이제 해를 달리해서 2015년 첫 저널이자,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때 마침 봄을 알리는 소식들이 남도에서부터 전해지고, 겨우내 있었던 많은 일 중에 제 1회 KAC-KAF 주최 청소년 캠프 소식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각 교회의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멀리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으며,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글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해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많은 소식이 오가리라 생각합니다. 가까이는 3월 원주에서 있었던 문선주 자매의 목사 안수식부터, 4월 제주도에서 열리게 될 KAF 상반기 모임과 춘천에서 들려오는 MCC와 KAC의 협력 사역의 모습, 7월 펜실바니아에서 열리게



설브룩 메노나이트 한인교회

저희는 지난 1년간 해왔던 BFC(Being a Faithful Church: 신실한 교회 되기) 공부를 1월 말까지 마치고 MC Canada에서 요구하는 대로 동성애에 대한 저희 교회의 의견을 결정하여 보냈습니다. 동성애에 관해 정리된 저희 교회의 입장은 설브룩 한인 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저희 교회에 새로운 가정이 왔습니다. 새로운 식구를 맞이한 것이 도대체 몇 년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식구가 교회에 주는 에너지가 참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형제의 많은 질문과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저희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장진구 형제가 세워졌습니다. 장진구 형

제님은 결혼후 신앙 생활을 시작하여 7년전 저희 메노나이트 교회로 오실때 까지 29년 동안 장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며 그동안 새로운 교회도 한번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재세례신앙 및 메노나이트 역사와 관련한 교재로 성경공부를 해 왔는데 좀 더 기초적인 것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형제도 생각해서 저희가 오래전 공부했던 "영적 성장"을 다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거듭남, 회개, 예수 그리스도, 성령 등의 주제가 모두가 함께 공부하기엔 너무 쉽고 지루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성경 공부를 두 그룹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으나 다른 모든 분의 반대로 모두 함께 "영적 성장"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1과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경 공부에는 초급, 중급, 고급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는 그 주제가 또한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격려가 되는 것은 10년 전에 공부할 때와는 나눔의 깊이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라진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관을 통해 어느새 훌쩍 커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정리:심현준형제)



예수촌교회

안녕하세요? 부목하지만 저희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만든 따뜻한 배티라이너입니다.
- 순천 예수촌교회 드림 -



- ▲ 세월호 유가족에게 예수촌 식구들이 마음을 담은 카드를 보내드렸습니다.
- ▶ 하나하나 포장하면서 기도와 정성을 모았습니다.

1. 세월호 유가족을 기억하고 지지하기

예수촌에는 매주 모여서 천을 자르고 미싱을 하며 빅워머도 만들고, 여성 용품을 만드는 ‘한땀회’ 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예수촌에서는 한땀회에서 만든 ‘따뜻한 빅워머’ 와 ‘건강한 팬티라이너’ 를 제작하여 안산 단원구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 합동 분양소에 보내드렸습니다. 택배를 보내려고 실명을 여쭙보았는데, “다영이 엄마’ 로 보내주세요” 하는 그 대답에 가슴이 탁 내려앉았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사는 엄마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이 마침 세월호 유가족이 팽목항까지 걸어가는 중이라 꼭 필요한 물건이라며 거듭 감사를 표하는 엄마에게 작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제작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 라오스선교사 가정 격려하기

2008년부터 예수촌은 ‘라오스바라기’ 라는 이름으로 라오스로 파송된 이 피터, 박하이디 선교사 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3-14년에는 라오스 학생(어라판)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한림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라오스바라기 팀이 2015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엔을 방문하여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이피터-박하이디 선교사님 댁에서 어라판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선교사 부부가 현재 일하고 계신 라오코리언컬리지에서 ‘한국어 발음 수업’ 과 ‘미술 수업’ 을 진행하고, 새롭게 한국어 방과 후 교실을 준비하는 국공립 고등학교에도 방문하였습니다. 하루는 MCC 라오스 사무실을 방문하여 Wendy와 여러 스텝들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께서서는 라오스 직원이 직접 진행하는 Peace building project에 관심이 있으셔서 앞으로 함께 연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어라판을 격려하기 위해 IVEP프로그램을 다녀온 Saba라는 믿음의 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라오스 일정을 준비하면서 만난 여행 전문가가 말하길, “라오스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라고 하였는데,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 작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선교사님의 삶을 들여다보니 이메일이나 사진을 통해서서는 충분히 전달될 수 없는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흐뭇하였습니다. 오는 6월에는 라오스에서 만난 학생들 3명과 어라판이 약 일주일

라오스 MCC 사무실에서
Wendy와 고센에서 자원
봉사 오신 Ron&Sally 부
부를 만났어요



예정의 단기 교환
프로그램으로 춘천
을 방문할 예정입
니다. 선교사님과
학생들이 한국방문

을 준비하면서 귀한 나눔의 시간을 보내시길 기도해주세요(라오스바라기와
어라판에 대한 이야기는 2014년 여름호에 자세히 소개되어있습니다)

3. 새롭게 시작하기

3월이 되면서 학생들이 새 학년이 되듯 예수촌교회 고을 편성이 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출타하셨던 홍광진, 김영희 자매님 가정이 복귀하였고, 매주 함께 예배는 드렸지만 같은 고을을 못해본 지체들이 한 고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선한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시작하는 고을마다 넘치고 이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4. 함께 중보하기

임지원 자매(21살)가 다발성경화증으로 인한 시신경염을 진단받아 서울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입원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명이 있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촌 교회는 지원이의 빠른 회복과 임환, 정수경 가정을 위해 릴레이 금식기도를 약 2주간 수행하였는데 KAF의 여러 지체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황수진, 남상욱)



LA 이음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위에 함께 하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미국 LA의 이음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Peace be with you!

Hermsa House의 세 가정

주일 아침, Sierra Madre Congregational Church(SMCC) 본당 바로 옆의 작은 가정집 Hermsa House에 세 가정이 모입니다. 계도, 지영, 주은(8)/ 제이슨, 크리스틴, 에벌린(14), 로렌(11) / 샘, 준이, 동우(6), 신우(3), 선우(5개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나서 샘 형제님은 아직 나이 어린 동우와 신우를 데리고 SMCC 어린이 모임에 가십니다.

남은 사람들은 작은 방안에 동그랗게 앉아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고, 기도문을 읽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요즘은 마가복음을 읽는데요, 개역한글, 새번역, NIV 등 각각 다른 번역본이지만 돌아가면서 한두 절씩 읽습니다. 그리고서 각자 그날 읽은 본문에 대해 자유롭게 나눔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어떤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눔이 끝날 때쯤이면 SMCC 어린이 모임에 갔던 동우와 신우가, 보통 무언가를 만들어서, 신나게 돌아옵니다. 이제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을 가운데 세우고 어른들이 동그랗게 둘러서서 오늘 나눔 본문과 관련하여 함께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음교회 전통인 축복/파송 노래를 함께 부르고 축복/파송 기도문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함께 점심을 먹는 시간입니다. 보통은 집집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데 오늘은 특별히 계도/지영 가정에서 카레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침에 서두르느라 김치를 깜박하고 가져오지 못했지만 하얀 밥 위에 카레를 붓고는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찾아가는 예배

작은 교회라서 가능한, 다른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하는 "찾아가는 예배"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지기로 해서 2월 8일 Mountain View Mennonite Church를 방문했습니다. 이음교회 창립구성원이신 허현 형제님, 수 자매님이 목회하시는,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혜정 자매(중규 형제는 감기라 못 보고), 현/수 가정의 건이, 린이, 율이와 반갑게 인사하고 허현 형제님의 영어 설교를 들으며 마운틴 뷰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3/1 만두 예배

언젠가 샘 형제님 가정
이 집에서 만두를 빚어 드
셨다는 얘기를 하다가 우
리도 다같이 모여 만두를
빚어 먹자고 얘기가 되어
서 저희에게 장소를 빌려

주는 SMCC 사정 때문에 모임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3월 1일에 계도/지
영 가정에 모여 함께 만두를 빚어 먹으며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세 가정이 각자 만두소를 준비해 와서 모여서 빚었는데 사전 조율이 없었
음에도 다들 비슷한 재료를 사용해 만두소 맛이 다 비슷했습니다. 직업 요
리사이신 샘 형제님과 제이슨 형제님의 지도로 참 풍성하고 배부른 시간이
였습니다.

이날 함께 읽는 기도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곡식과 떡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찢어진 생명의 떡이십니다. 성령
을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곡식과 떡 한 덩어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돌보
시는 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이 계심을 믿습
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모든 이의 굶주린 마음에 나눌 수 있습니
다. (We believe in God, the giver of grain and bread, and in Jesus Christ, the bread of life
broken for us, and in the Holy Spirit, God's nourishing power in every grain and loaf.
We believe that Christ is to be leaven in us, so that we may offer the bread of life to the
hungers of every human heart.)- 이음교회 번역

(정리: 전계도 형제)

제주 하늘 관당(가족)교회

하늘가족교회는 3월과 함께 적지 않은 변화가 있습니다. 홈스쿨 하던 아이들 중 3명이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한 명은 대학으로 두 명은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두 아이는 집 떠난 입학 첫 주, 낯설고 군대 같은 남자 학교에 적응하느라 만만찮은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남은 홈스쿨러들은 3명. 단출해져서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2월 28일에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지체들과 가졌습니다. 문서로 작성해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리더인 김성우 형제 가정이 3월에서 5월까지 안식월 갖습니다. 안식의 필



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교회식구들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김성우 형제부부는 농사와 홈스쿨만 계속하고, 메시지(윤영일 형제), 모임장소(한 달씩 각 가정에 돌아가며), 주일 청소년부(모두 교사가 되어 2달씩 인도), 모임인도(전창훈형제)등 나머지 교회에 관련된 일은 식구들이 나누어 맡습니다.

한 주가 지났는데 김성우 형제는 주일 아침에 영심이(강아지)와 산책을 하는 호사를 누렸다는 전언입니다.^^ 멈춤, 쉬, 회복, 풍성으로 채워지는 안식월이 되길 기대합니다.

4월에는 KAF의 2015년 전반기 모임을 저희 공동체가 호스트하게되어 기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바다 건너 제주에서 좋은 나눔과 교제가 이어지고 쉼 또한 있으시길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봄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리:김성우 형제)



논산 평화누리메노나이트교회

아이들과 도시 나들이.

1월 10일, 토요일 안사자매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는 경주 미주 훈석이와 함께 대전으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맛난 것도 먹고 3D 애니메이션 「펭귄」을 봤습니다. 다음에 또 오자는 약속을 하고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훈석이는 이제 양촌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잘 조절해야 할 텐데... 기력이 딸리네요. ^_^

안사도 10일 간의 휴가를 마치고 다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할텐데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씨알공동체 형제자매 방문

1월 16일, 1박 2일로 경산의 씨알공동체 형제자매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전국을 여행하면서 쉼과 아이디어를 동시에 구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든든한 청년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할 것이 있을까라며 생각했었는데, 밤늦게까지



목사님과 형제자매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매우 유익했고 참 귀한 공동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쪼록 정말 자랑스럽고 건강한 공동체를 일궈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동주, 문선주 자매 방문

1월 19일, 원주에서 사랑하는 박동주 형제 문선주자매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두 분은 만남을 위해 멀리서 달려와 준 오래된 벗 같았습니다. 한국에 귀국해서 힘든 사역을 잘 견디고 또 많이 단단해지시길 바라며 계속해서 서로를 책임지고 기도와 동역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 목사 아내를 두게 되신 박동주 형제님(목사)에게 멋진 외조의 은사도 부여지길 기도합니다,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주전자동아리 방문

1월26~28일, 홍성의 풀무농업기술학교의 선교동아리인 주전자(주를 전하는 자) 학생들이 양촌을 다녀갔습니다. 중열이가 다닐 학교의 선배들이지요. 건이도 와서 형들을 따라다니며 의젓한 형들을 보면서 꼭 풀무에 가리라는 의지를 다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저렇게 의젓하고 강단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로 강력히 추천할 만 합니다.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들의 잠자리 제공

2월 1~2일, 이틀간 세월호 인양을 위한 국토순례를 하시는 가족들과 동참한 국민 등 오십여 명을 평화누림교회에서 모셨습니다. 불편하셨을텐데 웃



는 얼굴로 오히려 저와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고 가셨습니다. 계실 동안에는 서울과 대전에서 뜰과 지압 안마 등의 봉사자들이 찾아오셔서 가족들의 지친 다리와 몸을 회복시켜주시기도 했습니다.

나래와 중얼이는 하루 논산 시내와 강경까지 도보단과 함께 행진했습니다. 추운 국도를 지날 때에 어떤 분은 박수와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싫은 말을 하기도 해서 가족들에게 미안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볼 때도 '이제 그만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개념이 없는 말인지가 분별이 되었나 봅니다.

모자란 식기 등을 위해서 함께 섬겨주신 논산 행복누림교회, 계룡의 늘사랑교회에 감사를 전합니다.

1회 아나뱃티스트 청소년 캠프

2월 23~25일에 청소년 캠프가 있었습니다. 20여 명이 오손도손 느슨하지만,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집안 일과 회사 일로 주인도 없는 곳에서 열심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신 형제 자매들께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합니다.

(정리:배용하 형제)



꿈이있는교회

설립 9주년 기념 행사

3월 8일 꿈이있는교회가 9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6년에 설립 예배를 드린지 벌써 9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아는 이도 없고, 걱정거리도 참 많았는데 어느 덧 귀한 지체들을 주셔서 한 공동체를 이



루게 하셨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최성규 형제님을 초대하여 작은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최성규 형제님은 예전에 '드림'이라는 밴드를 통해 활동하였다가 지금은 솔로로 활동 중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 모임

목장 모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목장이란 3-5가정이 함께 모여 삶을 나누며 공동체성을 개발하는 작은 단위의 모임입니다. 그동안 2년 이상 주중 모임을 쉬었습니다. 목자들이 많이 지쳤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주일 오후에 교제 차원에서 느슨하게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여러 지체들이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여러 차례 토론 끝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목장은 총 7개입니다.

그 외에도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시작하였고, 모든 교인은 1년에 1회 이상 심방을 요청하여 목회자가 각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피기로 하였습니다.

(정리:전남식 형제)



KAC

1.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생활교육』의 저자 로레인이 춘천을 방문하여 ‘회복적 생활교육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한림대학교 고령화 사회교육센터, KAC, 예수마음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좀 더 실제적인 회복적정의 운동이 강원도 춘천에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KAC Staff들은 2월에 속초로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도 타고, 겨울 바다도 걸으며 쉼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리트릿 동안에는 IVEP인턴십을 마무리하는 남지현, 박지원 자매와 새롭게 인턴십을 시작하는 배민정 자매가 함께 하였습니다.

3. KAC에서는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일학교 성경공부 교재 ‘Shine’을 번역하면서 주일학교를 위한 자료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제는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나뉘어져 있으며 올해 전반기에 KAF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KAP에서 2월에, 정의와 평화실천시리즈로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천』과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기술』이 출간되었습니다.

니다. 올해 전반기에 정의와 평화실천시리즈 완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KAP에서는 그 동안 책 출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KAP 역자들을 초청하여 감사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3월 28일 (토) 2시부터 역자들을 모시고 교제, KAP 사역소개, 문서사역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숍은 <문서사역으로써 도서 번역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KAP의 역자로 수고해 주셨던 김기현 목사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6. KAP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책 구입은 www.kapbooks.com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쉽게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

(정리:KAC 팀)



KAC Staff 속초 리트릿



덕소 이야기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KOPI가 가장 많은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에 3월 7일 서부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현재 부천에서는 부천지역교육청과 부천시가 관심을 갖고 KOPI의 회복적 정의/회복적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훈련된 교사와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와 센터의 일을 돕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역운동으로 회복적 정의 운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부센터는 현재 정진 소장의 리더십 아래 박새로미씨가 사무팀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 점차 새로운 스텝들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청소년교육팀의 일원으로 함께 일하던 배민정 자매가 IVEP 참가자로 선발이 되어 KOPI를 퇴사하고 춘천 KAC에서 인턴십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일하러 갈 자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KOPI에서 경험했던 내용이 IVEP 과정을 경험하는데도 도

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2015년 NARPI 여름 훈련이 8월 8일부터 21일까지 몽고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4월부터는 본격적인 참가자 모집과 홍보, 기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 스텝으로 일할 모에 사사키(Moe Sasaki)씨가 일본에서 와서 새롭게 팀에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NARPI에서 Karen을 도와 후원모집과 보고서 작성, 각종 서류업무 등 사무국 지원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지난 4년처럼 충분한 재정이 모집되어 동북아시아의 50여명의 참가자들이 평화교육과 갈등전환, 회복적 정의와 연관이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아리, 배민정, 모에 사사키, 케런 스파이커, 이로미)



Connexus 어학원

커넥서스 어학원은 꾸준히 학생들과 교사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월말로 같이 있던 Seth교사가 개인사정으로 미국에 돌아가게 되어 몇 반이 줄었지만,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반 이전이 잘되었습니다. 올 여름에 교사가 교체되는 시기이기에 새롭게 참여 할 교사들을 섭외 했고, 8월부터 새롭게 교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새롭게 구성될 팀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메노나이트 학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주로 기존에

일했던 교사들의 소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그렇지만 앞으로 새롭게 함께 할 강사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왼쪽부터 현 커넥서스 어학원 원어민 교사 Silvie, Sara, Michaela, Michelle, Seth, Sarah)



은혜와평화교회

은혜와평화교회는 서울에서 이전해 온 이후로 주로 덕소에 살고 있는 KOPI 스템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마음교회에 출석하던 김승천 정지연 부부 가족이 1월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로 성인들은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아이들은 Karen 자매의 진행으로 재미있고 맛있는 주일학교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이재영 형제)





KAF 소식

문선주 자매 메노나이트 교회 목사 안수식 (기획기사)

2015년 3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 강원도 원주의 영강교회에서 문선주 자매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 몇 명이 참석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앞으로 이어질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목사 안수식은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이벤트였지만, 그 이벤트에 앞서 우리가 함께 한 것은 하나의 여정이자 하나님 앞에서 드린 자리였다. 그 안수식은 미국의 Central District Conference와 한국 아나뱃티스트 펠로우십 (Korea Anabaptist Followership)이 함께 걸어온 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을 뿐이다.



식순을 머릿 속에 그리며...



식전에 손님을 맞는 문선주자매

예배는 원래 주일 낮 11시 사람들이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읽고, 광고하고, 헤어지는 그 시간을 말하지 않는다. 예배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매일 순간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총합을 예배라 한다. 주일 예배로 그 범위를 좁힌다 하더라도, 주일에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인사하고, 환영하고, 격려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며, 서로 눈도장을 찍고 대화를 나누는지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이번 문선주 자매 목사 안수식은 그렇게 준비되었다.

처음에는 영강쉐마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일하는 과정 중에 교목으로 계시던 분이 사임하자 문선주 자매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다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서 자연스럽게 교목으로 사역하기를 제안했다. 그 때부터 교목으로 일을 해왔다.

북미의 경우 목사의 역할과 기능 즉 사역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반면 타이틀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 목회가 청소년 사역이든, 장년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사역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라는 영역에서 일하는 동등한 일꾼이다. 그래서 설령 인턴으로 사역을 하더라도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고, 함께 당회에 참여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함께 한다.

한국의 경우는 우선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하다. 개인으로 사회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가졌던 다짐 중 하나



사회:전남식형제



말씀:김복기형제



두 딸과 남편 그리고 문선주자매

는 목회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봉사를 하며 목회를 했었다. 그곳에 봉사를 하러 갈 때 나는 일개의 자원봉사자로 갈 뿐이다. 자원봉사를 한 지 약 1년 쯤 봉사단체의 총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사로 소개되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이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런데 안수는 받으셨어요?” 라는 뜨악한 질문을 받았다.

전공을 바꾸어 북미에서 신학에 입문하고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목사가 된 나에게는 정말로 낯선 질문이었다. 또한 속해 있던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평신도 사역자들로부터 안수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 목사들이 꽤 많은 편이어서 그런 건 아예 질문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다.

이번 문선주 목사 안수는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영강쉐마학교에서 학생들은 상관없이 목사님이라 부른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안수 받아야 목사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인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 고민을 들으면서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지혜로운 행동’을 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이었다. 1) 처음 만나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굳이 일일이 목사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지 말 것 2) 미국에서 공부한 교단의 상황과 한국 교단의 상황을 분명히 인지할 것 3) 그리고 본질을 지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것 4)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만한 방법을 모색할 것 등이었다.

그 후 문선주 자매는 개인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처음에 KAF에 문의를 해왔다.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문선주 자매의 안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



언약의 화답



안수와 축복의 기도

게 된 것은 2014년 2월부터 시작되었고, 2014년 5월 KAF 연례모임에서 목사 안수에 대한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당사자인 문선주 자매는 한국 교단에서 안수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 학교재단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전혀 해 보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그 새로운 방식이 바로 이번 목사 안수식으로 연결되었다.

이번 문선주 자매의 메노나이트 목사 안수식은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의 Central District Conference와 Korean Anabaptist Fellowship이 상호책임을 지고 시행하였다. Anabaptist Mennonite Biblical Seminary에서 공부하면서 출석하고 목회 인턴을 마친 지역 교회인 하이블리 애버뉴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우선 목사 안수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동시에 지역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 CDC에서 담당 목사님이 목사안수과정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KAF에 연락해 오면서 긴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메노나이트는 항상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한 사람의 목사를 세우는데 있어서도 예외는 없다.

대개 목사 안수 과정은 1. 지역교회(회중)의 목사안수 필요성 인식과 요청 2. 본인의 내적·외적 부르심에 대한 분변과 반응 3. 목사안수에 대한 상호책임의 한계 규정 4. 담당자(지방회 및 상호책임 관련자) 모임 5. 구체적인 목사안수 과정 착수 6. 목사안수식 일정 논의 및 목사 안수식 7. 상호책임으로서 목사안수 후 1년간 멘토링으로 이루어진다.



사탕 고마워요.



격려사:서재일목사



축사:곽대순교장



축사:김경중형제

1. 지역교회(회중)의 목사안수 필요성 인식과 요청

위에서 설명하였지만, 지역교회(회중)의 목사안수 필요성 인식은 우선 영강쉐마학교에서 생겨났다. 우선 본인의 인식이 가장 명확했다. 학원사역의 맥락에서 교목으로서의 목회활동을 위해 필요가 요청되었다. 대개 목사 안수식은 지역의 회중이 요청하지만, 이번 목사안수는 특수성이 고려되었다. 메노나이트교회가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기독교학교라는 맥락에서 요청된 목사안수의 필요성을 본인과 학교가 요청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는 어디에 이러한 상황을 요청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질문이 생긴다. 대부분 이미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사역지로 부름을 받고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선주 자매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이미 교목으로 초청되어 사역을 먼저하게 되었고, 목사안수라는 필요성이 뒤이어 생겨난 것일 뿐이다.

2. 본인의 내적·외적 부르심에 대한 분별과 반응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든,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든 반드시 내적·외적 부르심과 이에 대한 분별의 과정과 반응을 필요로 한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동의 목회를 함께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자신의 부르심을 늘 점검한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개 이러한 부르심은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결국 개인



제자들의 축하



축복기도

으로 살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멤버십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다.

내적인 부르심은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점검하도록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외적인 부르심은 이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요청과 환경의 인도하심을 말한다. 이번 문선주 자매의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이미 내적·외적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으로 본인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소속된 교회 공동체(처음에는 이 이슈를 본인이 공부했던 AMBS에 연락하였고, 얼마되지 않아 멤버로서 활동한 지역교회에 연락하였고, 지역교회의 리더들은 다시 이를 지방회인 CDC에 연락하였고, CDC는 한국에서 상호책임을 질 수 있는 KAF에 동역을 요청)에 연락하였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내적·외적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점검하였다.

3. 목사안수에 대한 상호책임의 한계 규정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 초기 교회는 대략 3년에서 5년의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그 중 믿음에 대한 고백, 본인의 삶의 변화를 검증한 후에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킨 것을 우리는 성경과 초기 교회 사도 및 교부들의 문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사안수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으로, 공동의 분변과 상호책임을 필요로 한다.

이번 문선주 목사안수에 대한 상호책임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그것이 특별했던 이유는 목사안수 후 소속 교단은 미국 메노나이트



문선주 자매가 섬기는 학생들



축하의 포옹

교회인데 반해, 상호책임의 역할을 감당하는 단체는 KAF이며, 사역지는 한국의 기독교장로회에 속한 교회가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라는 복잡한 환경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냥 목사 안수를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하나의 예식으로 처리하면 문제는 쉽고, 일은 쉽다. 그러나 상호책임에 대해서는 서로 나몰라라 하기 쉽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핵심은 관계다. 공동체도 관계고, 교회도 관계다. 그 관계의 핵심은 역시 상호책임에 대한 언약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서로 후원하며 상호책임의 부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은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 CDC가 목사 안수에 필요한 제반 과정을 주관하고, 미국과 한국이라는 공간의 간격을 KAF가 메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CDC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KAF에 알리고, KAF는 CDC가 보내온 정보를 기초로 한국에서 목회자 후보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본인은 본인나름대로 KAF 모임에 진행사항을 나눔으로써 함께 책임을 나누어지기로 했다. 과정이 끝나 목사 안수식을 드릴 때, 그 식만 참석하기 위해 CDC에서 한국으로 올 수 없으니, 모든 식 진행은 KAF에서 맡기로 하고 일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CDC와 KAF가 상호 책임을 분담하는 모습으로 과정을 시작하였다.

4. 담당자(지방회 및 상호책임 관련자) 모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지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일까?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의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나는 “언약”이라 대답할 것

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공동체 자체가 언약의 공동체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이 언약이 기반이 되어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CDC와 KAF는 언약의 공동체로 서로에게 상호책임을 요청하였고,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담당자를 세웠다.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인 CDC에서는 목회 담당사역을 하는 지방회 목사인 Lois Kaufman이 문선주 자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하였다. (대개 목회자는 자신의 신앙고백, 목회적 경력, 은사, 가치관 등을 표현하도록 하는 목회리더십정보(Ministerial Leadership Information)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이 MLI는 하루 이틀에 작성할 수 있는 이력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처음부터 되돌아보고 안수를 받기 전에 점검해야 할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후에 안수후보자를 인터뷰 할 때, 이 자료를 근거로 지방회 리더십 카운슬이 질문하고 분별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왜 이 사람이 목회자 후보로 적당한지 세 사람의 후견인을 통해 추천서를 받는다.) 한편 한국의 KAF에서는 대표직을 맡은 전남식 형제와 총무를 맡은 배용하 형제,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의 김경중 대표,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소속의 김복기 형제가 공동의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CDC가 이메일을 통해 혹은 Skype을 통해 회의 내용과 과정을 보내오면, KAF는 회의를 소집하여 모임을 가졌다.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맡겨진 책임을 감당해 왔다.

5. 구체적인 목사안수 과정 착수

목회자 후보로서 분별의 과정은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구체적인 목사안수 과정은 목회자 후보인 문선주 자매가 MLI를 작성하여 보낸 후, 가속화되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인터뷰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그 후로 학교의 상황을 감안하여 새 학기가 시작된 후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되었다.

6. 목사안수식 일정 논의 및 목사 안수식

겨울 방학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좋은 쉼을 가져준다. 긴 겨울 방학 중

에 미국에서 언제 한국에서 안수식을 할 것인지 알고 싶다는 이메일이 왔다. 이 메시지에 반응하기 위해 KAF 모임을 가졌다. 2월 25일 대전에 모여 목사안수에 대한 일정 등 목사 안수식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목사 안수식을 갖자는 의견을 존중하여 3월 13일 목사 안수식을 했다. (목사 안수식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안수식에 참여한 뉴스앤조이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675> 이은혜 기자의 기사를 참고할 것.)

7. 상호책임으로서 목사안수 후 1년간 멘토링

은혜로운 안수식과 예배는 끝났다. 그러면 메노나이트 목사안수식이 기존의 안수식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 안수식 자체를 놓고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소박한 모습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고, 목사 안수를 할 때 교단의 거물 인사가 아닌 학교 학생들이 안수의 대열에 참여한 것도 특별하다 할 수 없다. 모르는 사람 하나 없이 문선주 목사를 아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도 특별하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메노나이트 교회의 목사 안수라고 해서 뭐가 다른가? 나는 하나도 다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목회 안수과정에 있어 우리들이 믿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는가 질문하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그토록 많이 이야기했던 “상호책임”을 목사안수 이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질문하고 싶을 뿐이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지만, 목사 안수식은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이벤트지만, 그 이벤트에 앞서 우리가 함께 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하나의 여정이자 예배의 연속이다. 그 여정의 연속선상에서 KAF 리더들은 목사 안수식이 끝난 후, 커피숍에 모여 문선주 자매와 앞으로 최소 1년 기간 동안 함께 목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고민을 주고받을 선배 목사를 추천하여 멘토를 세웠다. 멘토는 한 달에 한 번 목사안수를 받은 문선주 자매를 만나 교제함으로써 그 여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멘토와 문선주 자매는 앞으로도 KAF 모임에 참여하여 목회보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상호책임이라는 언약 아래, 일상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 나갈 것이다.

주님의 백성이 걷는 그 걸음과 여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하며.

〈정리:김복기 형제〉



문선주(본인, 44세) 박동주(남편, 목사 47세)
세림(딸, 15), 세윤(딸, 12)

메노나이트와의 만남에서 목사로 서기까지

- 2007년 6월 AMBS 여름학기 수강
- 2007년 9월 AMBS(Anabaptist Mennonite Biblical Seminary) 입학
- 2009-2010년 Hively Avenue Mennonite Church 목회 인턴
- 2011년 5월 AMBS 졸업
- 2011-2012년 Houston 동산 Methodist church 청소년 담당목사
- 2012년-현재 원주 영강쉐마기독교학교 근무
- 2014년 5월 11일 KAF 연례모임에서 목사 안수건 논의 (논산)
- 2014년 8월 5일 한국 아나뱃티스트 대표들과 목사 안수건 진행 (원주)
- 2014년 10월 31일 KAF 총회에서 한국 메노나이트 목사 안수건 인준 (춘천)
- 2014년 11월 MLI (Ministerial Leadership Information) 완료
- 2015년 1월 9일 미국 메노나이트 교단 (CDC) 목사인터뷰
- 2015년 1월 10일 인터뷰 통과
- 2015년 2월 25일 목사안수에 대한 일정 등 구체적인 논의 (대전)
- 2015년 3월 13일 목사 안수 (원주영강교회)



1회 아나뱃티스트 청소년 캠프

제1회 아나뱃티스트 청소년 캠프

주관: KAC, KAF
 일장: 2015년 2월 23일(월) 12:00사~25일(수) 12:00시
 장소: 평화누림교회 일대(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 520.)
 대상: KAF 회원 관련 교회 단체의 청소년(12~19세)
 참가비: 40,000원/인
 입금통장: 우체국 311639-01-004603 배용9(KAF)
 접수마감: 2월 16일
 문의: 010-2127-8139(김복기)

Anabaptist Youth Camp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God's Story, Our Story

⇒ 2015년 2월 23일(월)~25일 ⇐

Activity 1: 뱃민서 (KAF 청소년 및 평화활동 시금) - 공, 공동으로 만들 나눌 수도 있습니다.
 Activity 2: 뱃민서 (평화, 안고의) - 사랑과 지혜, 믿음과 이야기
 God's Story and our story: 김복기 (Mennonite Church Canada)
 Our story 1: 정성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세계 공동체 이야기
 Our story 2: 임정희 (주빌리교회) - 비누공예와 더불어
 Activity Tapestry: 김수진 (주님은 나의 목자 교회) - 천연 염색공예와 더불어
 Our story 3: 천남식 (꿈이 있는 교회) - 하나님의 광범, 인간의 광범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KAC/KAF 공동 주최 아나뱃티스트 청소년 캠프가 지난 2월 23~25일, 2박 3일 동안 열렸다. 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날 연휴 다음날부터 열린 캠프라 각 교회의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처음 개최하는 아나뱃티스트 청소년 캠프라는 큰 의미가 있었다. 춘천의 예수촌교회, 예수마음교회, 대전의 꿈이있는교회, 경산의 주님은나의목자교회, 진해의 주빌리교회에서 온 청소년들과 부모/교사들이 논산 양촌 평화누림교회에 모였다.

“God's Story, Our Story(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의 이야기)”라는 주제 아래, 도착하자마자 점심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모습이었지만, 점심식사를 마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자신을 소개하고, 함께 게임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 예배 전에 산청의 민들레학교를 방문하던 MCC 동북아시아 사무실 대표와 직원이 직접 메노나이트 프로그램인 IVEP/SALTer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다. KAC 김경중 대표의 통역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본 프로그램 개회 예배를 드렸다. 예배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배민정 자매님의 인도로 모두가 재밌는 게임을 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고, 동네의 아주머니이자, 이번 캠프장소의 주인 이신 박민서 자매님께서 청소년과 함께 등산을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저녁식사 시간 후,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 사람들이 하루를 정리하는 서클을 통해 자신의 소감을 나누었다.

청소년들의 열정과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일까? 그 지칠 줄 모르는 청소년들은 새벽 2시까지 실컷 노니다 주무시고, 각 교회에서 후원자로 봉사자로 오신 부모와 선생님들은 청소년들의 에너지에 감탄하며 일찍 코노래 삼중창을 이루며 방콕으로 여행을 떠나셨다.





둘째 날은 아침 식사 후, QT로 하루를 열었다. 하나님 이야기 듣고, 우리 이야기 말하기 시간으로 당일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 말씀으로 성경읽기 및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의 시각으로 본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흥미로웠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였다. 더 거두든 덜 거두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먹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어떤 친구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만나가 주어져서 평생 놀고먹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오전 활동에 들어갔다. 첫 번째는 후터라이트 공동체를 다녀오신 정성한 농부/교수님께서 세계 공동체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곧 이어 엄정희 자매님의 양초 공예시간을 가졌다. 저마다 자신의 초를 만들어 내느라 심혈을 기울이고, 초를 굳히기 위해 막대를 꽂아 놓은 모습들이 참으로 예쁘기 그지없었다. 오후에는 전남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주제로 한바탕 이야기가 펼쳐졌고, 곧이어 평화누림교회의 마당에서는 천연 염색공예인들이 천연 색소를 배합하여 흰 양말에 색깔을 입히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일반

인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천연 염색 공예, 그리고 끝이여 AnaSara의 인생여정 이야기가 풀어헤쳐졌다.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수련회의 가장 큰 인기는 식사시간이었다. 도착한 첫날부터 소개된 메뉴는 애, 어른 할 것 없이, 감탄에 감탄을 이어갔다. “아니 4만 원짜리 청소년 캠프에 스시 저녁에 파스타 정식이라니!” 하면서 모두가 두뚝한 배를 두드리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둘째 날 저녁 식사 후 펼쳐진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맘껏 발휘했던 시간이 되었다. 신앙 간증도 들렸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두 명의 친구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는 둘째 날의 밤을 무르익게 하였다.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하루하루를 정리할 때마다, 우리는 서클로 모였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무엇이 좋았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함께 느끼는 행복한 순





간이 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밤 10시, 어제 저녁 2시까지 잔 아이들이 오늘은 3시에 자면 안 되냐며 협상을 해왔다. 끝 모르는 에너지가 둘째 날도 그렇게 불태워지려나 보다 싶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렇게 밤늦게까지 놀던 아이들이 어떻게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서 모두 다 아침 식사에 참여하는지 신기했다. 한명의 아이도 아침을 거르지 않고, 눈도장을 찍었다.



마지막 날 아침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벌써부터 아쉬워한다. 아침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오늘 집으로 가야하냐고 질문한다. 그만큼 캠프가 좋았던 모양이다. 물론 캠프의 반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좀 더 친해진 친구들이 서로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친분의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 아침 QT 시간인 하나님의 이야기 듣고 우리 이야기를 말하는 시간에는 어제 늦은 밤까지 놀다 잔 탓인지, 아이들이 닭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긍하느라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다. 목상을 마치고, 곧 이어 애, 어른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둥근 원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가의 시간은 늘 주최 측의 가슴을 줄인다. 눈치를 보아하니, 어지간히

캠핑이 괜찮았던 모양이다. 아예 설교 없는 청소년 캠프는 없냐? 는 어린 중학교 친구들의 솔직한 의견도 있었고, 다음 번 모임은 좀 더 길게 갖자는 의견도 있었다. 어떤 친구는 대개 캠프가 끝날 즈음이면 빨리 집에 가서 엄마가 해 주시는 밥을 먹고 싶은데, 이번 캠프는 집에 가면 캠프음식이 그리울 것 같다는 농담까지 하며 즐거워했다. 캠프 전체를 평가하라니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후한 점수를 주었다. 다음 번 캠프가 언제 열릴 것인가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이번 캠프가 큰 에너지가 되었고, 서로 마음을 열고, 멀리 있지만 친구가 되는 귀한 수련회가 된 건만 틀림이 없지 않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작은 캠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각 교회의 교사/부모가 후원했던 아름다운 캠프였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청소년들을 포함한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들려지는 일이 지속되기를 기도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두 손을 모으면 그 수련회의 장면이 떠오르는 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아닐까 한다.

(정리:편집부)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를 소개합니다.

메노나이트세계협의회(MW: Mennonite World Conference)는 16세기 유럽에서 아나뱃티스트 운동이 시작된 지 400년이 지난 1925년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후 6년마다 각 대륙별로 개최지를 바꿔가면서 모이고 있는데 올해는 북미에서 제 16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메노나이트세계협의회(MWC)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나뱃티스트 신앙과 삶을 공유하는 170여만명 이상 되는 교회들간의 신앙과 삶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메노나이트세계협의회(MWC)의 비전은 전세계 아나뱃티스트 관련 교회들이 믿음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며 섬기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메노나이트세계협의회(MWC)의 미션은 전세계 아나뱃티스트 신앙의 전통을 공유하는 교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아나뱃티스트 교회들 간의 유대관계뿐 아니라 다른 교파의 교회나 단체들과의 관계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아나뱃티스트 펠로우십(KAF)은 현재 MWC에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 16차 MWC 총회에 대하여...

- 주제: 하나님과 동행하라 Walking with God
- 기간: 2015년 7월 21일 ~ 7월 26일
- 장소: 미국 해리스버그, Farm Show Complex



대회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각 나라의 교회와 단체의 대표자들 상호간의 모임과 대회 기간 이후 관련 교회 및 단체 방문 일정까지 포함하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긴 행사입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예배, 교제, 선교, 구제, 협력 등 아주 다양한 글로벌 모임과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www.mwc-cmm.org)를 통해서 등록한 사람들은 약 3000명 정도이며 매일 평균 30명의 사람들이 온라인 창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상 참가 인원은 최소 7,000~10,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공료를 제외한 참가비는 각 나라별 국민 총 소득에 의해 비례해서 결정되었는데 한국을 비롯한 북미와 유럽 나라들은 미화 \$ 575인 반면 대부분의 남미와 아프리카 나라들은 \$75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국민들이 지출할 수 있는 예산과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Global Youth Summit, General Council, Global Anabaptist Service Network, Global Mission Fellowship 등 글로벌 아나뱃티스트 협의체들의 만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MWC)의 하이라이트는 전세계 모든 참가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교제의 시간인데 참가자들은 천상의 예배를 맞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모임, 지구촌 청년 집회, 지구촌 축소 마을 방문, 주제별 워크

| Global Summary | | | |
|---------------------------------|------------------|------------------|-------|
| Continental Region | Baptized Members | MWC Global Membe | |
| Africa | 679,053 | 650,646 | 95.8% |
| Asia and Pacific | 315,645 | 253,682 | 80.4% |
| Europe | 64,575 | 26,479 | 41.0% |
|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186,339 | 100,967 | 54.2% |
| North America | 529,108 | 254,652 | 48.1% |

숍 시간 등 대회장 주변의아나뱃티스트 관련 교회/공동체/기관/단체 방문, 운동, 노동 봉사의 시간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별 워크숍에는 한국과 콜롬비아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워크숍”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mwc-cmm.org/pennsylvania-2015/assembly-gathered>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MWC)에 소속된 한국의 모든 교회와 지체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샬롬.

(김경중 형제: MWC 동북아 대표)

메노나이트 캠핑 협회 Mennonite Camping Association

<http://www.mennonitecamping.org/>

2015년 2월 23~25일, 논산 평화누림교회에서 제1회 아나뱃티스트 청소년 캠프가 열렸다. KAC와 KAF가 공동 주최하고, KAF관련 교회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캠프였다.

해마다 방학이 되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러한 상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인지 해마다 여름이 되면 견문을 넓히려고 자녀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여기 저기 창의적 글쓰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을 찾아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감사하게도 KAF 관련 교회에는 좀 더 창의적이고 온전한 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서 홈스쿨을 하는 가정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자녀를 대상으로 펼치는 교육은 대략 공교육, 사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교육은 국가가 정해 놓은 교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 있고, 의무교육의 기간이 끝난 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받는 고등교육이 있다. 굳이 교육과정으로 따지자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연령에 따라 구분하거나, 학교의 성격에 따라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로 구분할 수도 있다. 학교의 성격을 좀 더 세분화하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대안학교, 학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저마다 더 나은 교육을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시간을 쪼개서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자녀들이 의미 있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녀들의 잃었던 호흡을 되찾아주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자신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아마도 캠프는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문득 그렇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혹은 자녀의 입장에서 “캠프”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일까 물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얼마 전에 제1회 아나뱃티스트 캠프를 마쳤지만, 캠프를 구상하고 주관하면서 든 느낌은 한편으로 많이 아쉬웠고, 앞으로 추천할만한 캠프를 꾸려나가기 위해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저 북미에서 자녀들을 캠프에 보내면서 경험했던 추억의 파편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북미 18년 생활동안 우리 가족은 메노나이트 캠프를 비롯하여 기독교 교단들이 운영하는 캠프, 도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캠프, 여러 사회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캠프, 학교에서 운영하는 캠프를 경험하였다. 그 중 메노나이트 캠프에 대한 경험이 최고의 경험이었기에 이번 호에서는 메노나이트 캠핑 협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1995년 뜻밖에 만난 메노나이트 교회는 우리 가족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그 중 처음 경험했던 신선한 문화적 충격은 메노나이트 캠프장에서도 경험되었다. 이전에 소개했던 대부분의 메노나이트 기관이 그렇듯이 메노나이트 캠핑 협회 또한 교회가 적극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을 보내거나 개인적으로 방문했던 메노나이트 캠프는 마니토바 주의 캠프 아시니보이아, 캠프 무스레이크, 알버타 주의 캠프 발라쿠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캠프 스퀘어, 온타리오 주의 실버레이크 메노나이트 캠

프, 프레이저 레이크 메노나이트 캠프, 그렌부룩 데이캠프, 캠프 히든에이커를 방문하였었다. 미국에서는 미시건주 남부에 위치한 캠프 프리텐스월드를 방문하였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은 모든 캠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벽찰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위치해 있고, 도시에서 떠나 하나님의 창조질을 다시 생각하며 충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저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1년 중 청소년 캠프는 7,8월에 집중해 있고, 나머지 10개월은 주변의 후원 교회 혹은 멤버 교회를 우선으로 수련회나 리트릿으로 운영된다.

메노나이트 캠프 협회 내에 미국 캠프는 31곳, 캐나다 캠프는 10곳 총 41곳의 캠프가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즐겨 찾고, 한국 아이들을 가장 많이 보냈던 실버레이크 메노나이트 캠프와, 조금 특성이 달랐던 그렌부룩 데이캠프에 대해 알아보자.

1. 실버레이크 메노나이트 캠프 <http://slmc.ca/>

얼마전 50주년을 기념한 실버 레이크 메노나이트 캠프는 이름 그대로 온타리오 주의 실버 레이크(은빛 호수)에 위치해 있다. 이 캠프는 동부 메노나이트 지방회에서 사역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고, 메노나이트 교회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전임 디렉터와 스태프를 두어 운영관리하고 있다.

주로 청소년 프로그램은 여름 방학 기간 동안 6세부터 16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꾸려진다.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메노나이트 교회들이



우선하여 사용하거나 그룹에게 대여하면서 보수 및 유지관리 한다. 캠프장은 공동의 모임 장소와 주방이 마련되어 있는 센터 건물이 있고, 나무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캠프 참가자들의 숙소인 캐빈이 여기 저기 위치해 있다. 활동은 축구, 농구, 배구, 활쏘기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비롯하여, 너른 잔디밭, 어린이 놀이터, 원형의 캠프파이어 시설 및 두 세 곳의 야외 예배 시설, 작은 연못 하나와 큰 실버레이크 등이 있다. 실버레이크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대략 600여 미터가 되는 호수로 수영, 카누 및 카약 등의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또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이 마련되어 있고, 여름 동안 가족 캠프, 아트캠프, 카누 캠프 등을 참가하는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30여분을 하이킹할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캠프이다. 숲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캠프는 토론토에서 3시간 거리로 도시를 떠나 자연을 만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혜의 Retreat 장소이기도 하다.

2. 글렌 부룩 데이캠프 - 윌로우그로브

<http://www.willowgrove.ca/Day-Camp>

그렌 부룩 데이캠프는 말 그대로 일일 캠프다. 숙박 시설이 없는 도시 근교의 캠프로서 토론토 북쪽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주변의 콩밭과 옥수수 밭 등 농지가 한껏 푸르름을 자랑하는 여름에 일주일 단위로 데이캠프가 열린다. 주로 토론토 근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록 메노나이트 교회가 운영하는 캠프이지만, 대상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이름이 말해주듯 캠프장을 가로지르는 작은 실개천 이름이 그렌부룩이다. 때로는 텐트를 치고 하룻 밤 기숙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주로는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경까지 운영되는 캠프이다.

캠프는 연령, 활동, 주제로 성격이 규정되며, 7,8월의 캠프에 참가하기 위



해 2월경부터 등록신청을 받는다. 그만큼 잘 준비된 캠프이며, 훌륭한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 아나뱃티스트 저널에 북미의 캠프를 소개하는 것은 그냥 저 북미에 이런 캠프가 운영되더라는 식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여름 방학이든 겨울 방학이든 우리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보자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환경이 다른 한국에서 이들과 똑같은 캠프를 한번 운영해 보자는 것도 아니다. 다른 메노나이트 기관을 소개하는 이유와 같이, 메노나이트 캠프 협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배경과 철학, 신학,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헌신을 했는가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나름의 길을 모색해 보기 위함이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디딘 KAC-KAF의 청소년 캠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진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엇이든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쉽다. 그냥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든, 교회에 보내든 보내고 거기서 미리 준비된 내용을 아이들로 하여금 체득하고 경험하게 하는 일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일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교육이라는 매우 중대한 관심사를 통해 어떻게 조금씩 이루어 나아갈 것인가?는 좀 더 진중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다. 앞으로도 몇 번 더 진행될 메노나이트 관련 기관을 통해 작지만 현실적인 통찰력을 얻고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부, 김복기 정리)

아나뱃티스트 위트니스

2015년 10월호 원고모집

주제: 맛보아 알지어다: 아나뱃티스트 신앙, 음식, 그리고 선교

원고 마감일: 2015년 5월 1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였거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마시며 나누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선교의 실천이 또 있을까요? 이번 2015년 10월 호 아나뱃티스트 위트니스의 주제는 “맛보아 알지어다!: 아나뱃티스트 신앙, 음식, 그리고 선교”입니다. 이번호를 통해 음식과 선교의 관계 및 영향을 되돌아보며, 특히나 아나뱃티스트 신앙이 어떠한 다양한 맛과 모습으로 이땅에 드러나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든지 더 빨리 더 많이 차지하며 살라는 ‘자본주의’ 적 삶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과 모습으로 떡과 잔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특별 레시피의 신학적 풀이나 견해가 될 수도 있고, 음식을 나누면서 경험했던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되새겨보는 짙막한 시, 수필이나, 포토에세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여러분만의 맛깔스러운 원고를 환영합니다!

이번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디자인/미술 편집위원 이세진(saejin1210@gmail.com)자매나, 공동 편집위원장 Jamie Pitts(jpitts@amb.edu) 앞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노나이트 세계 컨퍼런스(MWC)에서 ‘아나뱃티스트 위트니스’를 찾아주세요!

2015년 여름 7월 21일-2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있을 메노나이트 세계 컨퍼런스에서 “Anabaptist Witness: Walking with God into the future of Anabaptist and Mennonite Missiology”라는 주제로 아나뱃티스트 위트니스의 공동 편집위원장인 Jamie Pitts, Jamie Ross가 짧은 워크숍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7월 22일 (수) 오후 1:30-3:00까지 있을 이 워크숍은, 어떻게 하면 저희 저널이 ‘교회의 선교’에 관련된 **글로벌 아나뱃티스트** 대화의 장’으로써의 가치관과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것 입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고민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복의 여행을 떠나다.

지난해 12월 5~7일 2박 3일 동안 남편과 함께 회복적 정의 심화과정에 참여했다. 작년 8월부터 회복적정의 입문부터 강사과정까지 마치는 동안 우리 집에서 끊임없이 회복적정의, 정의, 회복적 생활교육, 직면, 치유, 화해, 공동체 등에 관한 내용을 남편이 지켜워할 정도로 쏟아냈었다. 그리고 회복적 마을, 도시를 꿈꾸며 그림까지 그려서 남편의 머릿속을 거의 세뇌수준으로 만들었다. 늘 나의 생각과 행동을 무한 신뢰(?)하는 그분은 자기까지 함께 끌어들이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엄정희 자매
(진해주빌리교회)

드디어 지난 7월에 우리 공동체에서 준비한 회복적정의 입문 1기에 참여했고 올해 마지막 심화과정까지 함께 하였다. 남편인 성환 형제는 연차까지 써가며 이 모든 과정을 기꺼이 참여해주었다.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둘은 달달한 여행을 시작했다.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혁 강사님이 또 정용진 소장님이닷!!! 난 이번 심화까지 합치면 3번이나 듣는데 올 7월에 있었던 입문이랑 8월 강화도 심화에 서도 소장님이었는데... 운명이라 생각했다. ^_^

첫날은 입문과정에서 들었던거라 편안하게 생각했고 다들 교사들이라 현장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남편도 평소 들어보지 못했던 학교얘기가 자기 때와는 완전 다르다면 흥미로워했고 교사에 대한 거리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맘까지 생긴다고 했다. 그리고 그분들

을 도와 드릴 일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 첫날을 마감했다. 둘째 날, 씨클과 질문 만들기는 집에서도 가끔 하는 거라서 남편은 어려워하지 않았는데 바꾸어 말하기와 갈등분석부터는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특히 우리는 둘 다 경상도 사람이다. 나는 완전 부산 노자, 성환 형제는 진해 토박이다. 그러니 평소 말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 남들이 보면 우리 두사람의 평범한 대화가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이다. 호호호호호. 성환 형제는 온화한 성격이라서 무난하지만 나는 다혈질에 직선적인데다가 표정까지 다양해서 남들이 볼 때 오해를 사는 편이다.

바꾸어 말하기는 정말 나에겐 어려운 숙제였다. 성환 형제도 그랬는지 얼굴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나의 문장을 예로 들어보자. “나로서는 그 학생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학생이다가도 어떤 때는 형편없거든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군요”라고 바꾸어 말하는 것이다. 상담에서도 그렇고 회복적 정의에서도 바꾸어 말하기는 필요하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대화 중에 바꾸어 말하기는 관계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교육을 받으며 성환 형제의 얼굴의 낯빛 조금씩 달라져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갈등분석에서 그 낯빛은 어두워지고 두통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ㅋㅋㅋ 처음 심화과정을 접했을 때 딱 내 모습처럼 보였다. 실익을 찾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를 찾아내는 일은 어려운 작업이다. 늘 양보와 순응의 아이콘인 성환형제에게 실익을 따지고 뭔가 욕구를 알아내는 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나는 남편이 자주 신기할 때가 있다. 난 분명한 게 좋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고 나의 욕구를 오히려 드러내고 얘기하는 편이다. 반면 성환 형제는 늘 관찮다고 한다. 정말 관찮은 거 맞냐고 불만 없냐고 물으면 자기 자신은 그게 편하고 익숙해서 그런다고 한다. 그게 진심이라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되어서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결국 그의 말과 행동은 진심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래도 살아가면서 더 연구해 봐야할 사람이다. 하

하하하. 화도 잘 안내고 이해심도 오대양 육대주 같은 성환 형제에게 갈등분 석은 어려운 게다.

두통도 올만하다. 나도 그랬으니깐. 그날 밤 참석하신 분들과 다과시간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았다. 둘째 날도 무난히 마무리했다.

마지막 날은 질문하는 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는 일이 있어서 서둘러 내려와야 했다. 그리고 보니 두통은 어느덧 사라진듯했고 표정도 좋아진 듯 했다. 성환 형제는 심화과정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 같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도 매일의 삶속에서 짧게나마 이번에 배운 것들을 실천해보리라고 다짐하듯 말했다. 나 또한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손을 잡아주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많은 얘긴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무언의 약속을 한 듯 했다. 많이 다른 두 성격의 소유자가 함께 공유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다는 것이다. 12월을 남편과 함께 회복의 여행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 회복적정아가 남편과 나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번 회복의 여행을 통해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의 동행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나뱃티스트로 걷는 여정

작년까지 저는 잘 알려진 교단에서 교육전도사 10년, 전임전도사 4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스스로 성실하고자 노력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최고의 신학이라고 생각했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역 현장에서의 경험들, 14년간 축적된 그 경험들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최소한 내가 믿고 지향하는 바는, 제가 몸담고 있던 교단의 것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준에 몸담고 있던 교단에서 배운 것도, 받은 은혜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있어 최종적 권위를 가진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가 느낀 아쉬움의 정도는 단순한 아쉬움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성빈 형제
(예수마음교회)

이러한 아쉬움 속에서 고민하는 동안 책을 통해 ‘메노 사이먼스’를 만났습니다. 꽤 잘 나가던 가톨릭 사제였지만, 스스로 자신의 경건치 못한 상태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있던 그는, 비록 신학적으로는 다소의 오류가 있었을 지라도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위해 순교까지 마다 않는 재세례파 교인들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사제로서의 삶에 대해 그는 자신을 일컬어 “바벨론의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솔직한 고백, 고민, 그리고 매우 대담한 삶의 전환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비록 일각에서는 메노의 엄격한 성경문자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저는 무

엇보다도 성경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그의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평화에 대한 그의 신학과 순수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철저한 권징 - 평화적인 권징 - 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생활에서 기존의 교단을 나오는 것은 개인적 신학적 선호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KAC 를 만나게 되고, KAC에 계신 분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교단에서 볼 때에는 규모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적은 사람들. 특별히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은 기존 교단에 있으면서 “규모”와 “스케일”의 유혹에 상당히 치우쳐 있었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나, 예산은 얼마나 하는 이슈들이지요. 그랬던 저에게 KAC와 재세례파 교회의 모습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KAC를 통해 만나게 되는 한 분 한 분의 성품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상당히 열린 자세를 엿볼 수 있었고, 또한 상당히 평화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주장하거나 논쟁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견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온유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질문을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질문공세에도 끝까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며 그러한 대화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국, 기존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재세례파 교회인 예수마음교회의 성도로 출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마지막 사역했던 교회에서의 끝마무리가 참 좋았다는 점입니다.) 2014년 9월부터, 성남에서 춘천까지 매 주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 현재까지의 시간이 불과 몇 분 정도밖에 안된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때때로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와 같은 끝 모를 막막함이 순간순간 강력한 흑과 스트레이트로 나의 영혼의 복부와 머리를 사정없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4년 동안의 교역자의 삶에서 평신도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처음의 예상이 무색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과정에서 믿음으로 동참해준 아내 신애 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새벽마다 성남에서 춘천까지 겨울바람을 맞으며 “교회가 너무 멀어요”라고 중얼대며 함께 오고 간 아들 승주에게도 고맙습니다. 그에게 신애 씨로부터 “가끔씩 너무 막막해서 혼자 울었다”는 말을 처음 듣고, 그동안 아무런 힘든 내색도 없이 참아준 것이 더욱 고마웠습니다. 기존 교단에서 나오면서, “집”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는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머리 돌 곳 없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세례파 교회에서 7개월을 보낸 지금, 저는 그 동안의 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의가 보다 실제적으로 체감됩니다. 재세례파 교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배워오고 가르쳐왔던 복음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의 복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리 내 입과 글로 천국의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가 증거 되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과 모순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닌 “심각하게 병든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깨달음입니다. 재세례파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생활을 통해, 저는 저 자신의 죄악된 실존을 보다 선명하게 직시하게 되고 그리고 보다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불과 7개월의 기간이지만, 이 곳에서 만난 많은 분들 중에는 닮고 싶은 분들

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품과 생활을 통해 큰 도전을 받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존 교단에 있을 때, ‘죽어도 저렇게 되기는 싫다’고 종종 느꼈던 느낌들과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세례파의 특징을 감히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담론과 실천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뱃티스트 교회로 옮긴 지금 저의 가장 큰 변화 중 한 가지는 타 종교인들에 대한 저의 태도입니다. 이 전의 저는 타 종교인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셨을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묵상할 때에도, 강도 만나 피 흘리며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 개신교 담임목사, 카톨릭 추기경 모두 지나가지만, 어느 선한 불교인, 혹은 어느 선한 무슬림이 그를 도와주고 살려줄 수도 있다는 묵상을 해 봅니다. 그 때 그리스도께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일련의 기독교인들이 용감하게도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며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 수도 있겠다는 “심각하게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상상을 하며, 글을 마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

여는 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찬양으로 부르심

주님이 우리의 빛, 우리의 구원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시편 27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체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록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알밋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감사드림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자유롭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찬송

웬말인가 날 위하여 (143)
예수 나를 위하여 (144)

제자로 부르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다니엘 3:16-18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살피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

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굶어살피 주십시오."

누가복음 23:32-38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묵상한 말씀을 나눈다.

찬송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

빌립보서 2:5-8

기도로 부르심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오 주님, 들어주소서, 우리가 크게 울부짖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심령이 “오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께서서는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안의 다른 염려를 맡기어 드립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시험 받을 때에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기십니다.
우리 안의 자만심과 교만함을 깨뜨려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웃과 원수조차도 모두 품기를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축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금요일 저녁

여는 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찬양으로 부르심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니,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시편 22:10-22 [9-21]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 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 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 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초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 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겂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우리 발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

거기 너 있었는가 (147)

갈보리산 위에 (150)

고백

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 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 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침묵기도)

주님은 우리 안의 어려움을 도우시고 곤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괴로움과 근심을 살피 주십시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자로 부르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스바냐 3:19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누가복음 23:39-48

예수와 함께 달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께서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것도 잘못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낮 열두 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묵상한 말씀을 나눈다.

찬송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

거기 너 있었는가 (147)

빌립보서 2:5-8

기도로 부르심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안의 다른 염려를 맡기어 드립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슬픔을 견디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배척한 인간을 품으셨고
아들의 죽음까지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랑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축도

나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부활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5-11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부활절 일요일 아침

여는 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찬양으로 부르심

우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찬송을 올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할렐루야.

시편 29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찌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찌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론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시숨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 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감사드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유롭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아침에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찬송

무덤에 머물러 (160)

제자로 부르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28:1-10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 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러 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나서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뵈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 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히브리서 7:1-3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

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서 계신 분입니다.

묵상한 말씀을 나눈다.

찬송

예수부활 했으니 (164)

주님께 영광 (165)

빌립보서 2:5-11

기도로 부르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주님의 구원은 영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또한 영원할 것이다.

평화의 하나님,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임할 수 있도록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안의 다른 염려를 맡기어 드립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영광의 하나님,

주님은 겸손한 자와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죽음을 지나 새 생명을 얻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평화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일요일 저녁

여는 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찬양으로 부르심

오라, 밤에 주님의 집에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할렐루야.

시편 110:1-4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벨기세텍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 두실 것입니다.

(자유롭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아멘.

찬송

즐겁도다 이 날 (167)

고백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침묵기도)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누가복음 24:1-12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와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

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베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히브리서 1:1-9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만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나눈다.

찬송

할렐루야 우리 예수 (161)

빌립보서 2:5-11

기도로 부르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리라.

새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임할 수 있도록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안의 다른 염려를 맡기어 드립니다.
(합심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생명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차가운 죽음의 사슬에서 끊으셔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들의 차갑게 얼어붙은 손과 발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축도

주님, 주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성도들처럼 하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
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BFC 1: 성경해석의 발효* 과정 가운데 영적 분별하기

앞으로 연재하게 될 BFC 시리즈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 앞에 주어진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분별의 과정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한 형제 교회가 기울인 노력을 통해 공동체의 분별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버트 수더만 Robert J. Suderman

배경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Mennonite Church Canada)의 총회대표부(General Board)에서는 우리 교회의 영적건강이 어떤지 측정하고 있다. 이는 쉽지 않은 임무인데 그 이유는 21세기 캐나다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몇몇 저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기(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 중 하나라고 일컬을 만큼) 캐나다라는 토양이 매우 척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은 교회로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직면해야 할 가치가 있다.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로서 우리는 시대의 주요 사안들에 관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전반적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총회대표부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분별의 필요성과 역량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조직을 구성할 것인가?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분별의 필요성은 우리 가운데 있는 신실함에 관한 질문들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하다. 다른 조직들과 함께 총회대표부는 우리의 계속적

* Ferment: 발효 (성경해석은 그 과정의 영적 건강성에 따라 바른 결과를 생산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발효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함)

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분별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찾아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a) 교회의 안에 존재하는 일치점과 다양성
- b) 평화교회(Peace Church)가 되는 것
- c) 종교 다원주의적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
- d) 교회의 안에서의 성문제
- e) 신앙적 측면에서 본 친 환경 문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결단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1) 우리는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탐구하기로 약속한다.
- 2)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짐을 함께 지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를 더 깊은 진리와 회개로 인도하심을 믿는다.
- 3)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기로 약속한다. 2011년 7월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총회대표부에서 제안한 실천 안건
- 4)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위해 노력하며, 분별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 5)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한다.

목적

교재를 기록하는 목적: ‘이 세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영적 분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왜 지금인가?

우리는 지금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 몸에 속해있는 서로 다른

지체들(전신자제사장)이 동일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들이 상충되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있어 함께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기도 한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다양성은 전체 기독교뿐만 아니라 메노나이트 안에서도 항상 있던 일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할례, 노예제도, 교회 사역에서의 여성의 역할, 평화주의, 경제 모델, 창조, 교회 구조, 회중의 권위와 자치권 등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 항상 있어 왔다. 현재 메노나이트 안에서 우리의 분별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성경해석 방식 그 자체 보다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찾아야 한다.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되기 위해 올바른 분별을 추구하는 모두의 결단을 통하여 성서에 대한 교회적 믿음이 나타난다고 믿는다.

- 1) 메노나이트로서 우리는 교회는 성경에 기초하여야 하며, 성경해석은 회중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우리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영적 불안정과 변화 가운데서도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제 사려 깊은 분별에 필요한 것들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잠 15:22).

이것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략이다. 물론 우리가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메노나이트로서 우리는 이미 많은 분별의 과정들을 경험해 왔다. 여기서 설명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전에 해왔던 노력들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사실상 그 반대이다. 여기서 설명하

는 것들은 이 전에 해왔던 수고와 노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과 과정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과거의 경험적 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한다.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임무: 분별은 필요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모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평생의 사명이다.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쉬지 않고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 바로 분별(Discernment)이다. 다음은 우리들에게 이 분별의 사명을 깨우쳐 주는 성경말씀 들이다.

누가복음 12:54-56

우리가 생활 가운데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시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kairos)를 읽는 것”은 교회의 일상적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참담해 하신다. 시대를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것은 위선 때문이거나 위선을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둘 다이다.

마태복음 18:1-35 (요한복음 20:22-23 참조)

교회에게 주어진 놀라운 임무 중 하나가 죄를 처리하는 것이다. 겉으로만 보면 이단적 임무이다. 죄를 분별하거나 용서하거나 그냥 놓아두니 말이다. 이런 임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 세 사람에게 주어 졌다는 것은 지금 까지도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매우 큰 책임이다. 그 당시 까지만 해도 그러한 임무는 하나님 한 분만의 책임으로 여겨졌다. 죄를 처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찾아서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용할 기준들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이것은 교회가 함께 모여 계속해서 찾아가야 할 일 임에 틀림이 없다.

요한일서 4, 5

교회 안에서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내의 제자도와 신앙에 대한 안테나를 항상 높이 세우고 있어야 한다. 교회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끊임없이 시험할 임무가 있다(요일4:1).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보편적 지혜와 관례에 대한 영적 출처가 항상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하는 가정들(common assumptions)의 뒤에 숨어있는 영들의 실체는 금방 쉽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요한복음 16:1-1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고 나면 그들과 함께 할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든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가 쉬지 않고 진리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지, 어디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끊임 없이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과 사회적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인도 아래 성경을 해석하는 공동체에 의해 바르게 분별된다.

위의 모든 성경 구절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임무 그 이상이다. 이것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다.

재세례파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분별할 때만 성경의 권위가 나타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 성령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을 교회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따라서 공동체가 성경 해석과 관련해 믿음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성경은 이 세상을 위한 성경의 기능적 권위를 잃게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별의 사역에 참여할 때, 성

경과 경험은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

- a)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오셨다. 역사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신실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삶도 살았고 진실도 밝혀졌고 지혜도 얻었다.
- b)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영적 현상들에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영적 진실이 만들어 질 것이란 뜻이 아니다. 성령님은 오래된 진실들을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놓을 수도 있다. 그런 놀라운 현상(선물)들에 자칫하면 마음을 단기가 쉬운데, 교회는 그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이 오해, 갈등, 위협, 성급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것 또한 교회의 소명이다.

교회가 분별의 과정에 참여할지라도 “어두운 유리 (혹은 희미한 거울)” (고전13:12)을 통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우리의 최선이라고 고백한다. 우리가 내린 정의와 발표하는 것들이 절대로 마지막 결론은 아니다. 우리의 분별 또한 하나님의 시간(kairos)과 우리의 시간(chronos)안에서 드러난 진실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강령과 신학과 고백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 분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반영하는 더 완벽한 진실과 이해 속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제로 경험하게될 경우들

지속적으로 분별을 한다는 것은 교회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 항상 되풀이해서 말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되풀이해서 말할 때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된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신앙적일 수도 있고 비 신앙적일 수도 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중 몇 가지 만 소개한다.

a) 교회는 이 전에 말했던 것을 반복할 수 있다.

성경에서 발견한 예: 예수님께서서는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 쉼마(shema)의 일부를 인용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교회 역사에서 발견한 예: 16세기와 1, 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가해진 외부로 부터의 핍박과 내부로 부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메노나이트들은 평화주의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재차 확인하였다.

b) 교회는 새로운 영적 이해에 따라 이 전에 말했던 것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전에 제시했던 것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발견한 예: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라 완성하려 하심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신 여섯 번의 말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교회 역사에서 발견한 예: 메노나이트 들은 “무저항”에서 “비폭력적 저항”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c) 새로운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 졌고 교회법이 내는 음성들에 주어진 상대적 권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분별되어질 때, 교회는 이 전에 말했던 것을 변경할 수 있다.

성경에서 발견한 예: 새로운 이해에 따라 “선민”에 이방인을 포함시키게 되고 더 나아가 할례와 음식에 대해서도 “성령과 우리에게 좋게 보이는” 쪽으로 이해가 바뀐다

교회 역사에서 발견한 예: 교회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편에 서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아니하고 교회 사역 안에서 등등해진 여성의 역할

분별의 의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지혜의 충분성(Sufficiency of wisdom 더 이상의 분별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지혜를 얻었다는 생각)과 영적 놀람(Spiritual Surprise 성령님이 보여 주실 예상치 못한 분별의 결과에 대한 기대)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의 세 가지 경우 중 어떤 경우를 경험하게 될지는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적/성경적 분별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께 대한 믿음의 훈련이다. 교회는 항상 이 전에 분별되어졌던 것들의 토대(foundation)를 분별하는 일에 참여해야한다. 분별한다는 것이 우리가 표류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과 이제까지 분별되어 왔던 지혜의 충분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미 분별된 것을 바꾸는 것을 전제하고 분별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성령님에 의해 계획된 놀라운 분별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 즉, 토대(foundation)에 문제가 없어도 분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 충분성과(더 이상의 분별이 필요 없음) 놀람(예상치 못한 분별의 결과에 대한 기대) 사이의 긴장은 항상 있어왔는데 교회가 이것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성령과 우리에게 좋게 보였으니…” (행15:28)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분별의 공동체이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죄와 맞서 싸우라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순종의 의무를 따르는 교회)되게 하는 신뢰이고 믿음이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분별의 소명을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다.

신실한 교회가 되는 것

영적 분별의 과정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겪게 될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spiritual sufficiency) 혹은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spiritual surprise) 하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역량이다. 우리의 시간을 위해 하나님의 시간(kairos)을 지속적으로 분별하는 소명을 다하는 교회 즉 그러한 교회가 되려는 우리 역량이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관점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매우 격렬하면서 어쩌면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그런 토론의 과정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제안한다.

- 1) 우리가 영적 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영적 분별은 개인적 선호도나 동료들의 압력, 사회적 고상함, 정치적 정의, 과학적 논쟁 혹은 조직의 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며 결과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다.
- 2)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우리는 매우 진지한 자세로 영적 훈련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금식, 예배, 듣기, 잔치, 분별, 대화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 3) 우리가 교회 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감당할 첫 번째 도구로 부름 받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충분한 분별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이 시대에 (사실상 모든 시대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분별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사람들은 교회를 더욱 강하고 신실하게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것이다.
- 4)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교회 안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는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의 범위는 세상

그 자체이다. 즉, 우리는 영적 진리를 개인, 단체, 사회, 과학, 정치 혹은 기관들로부터 발견하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그 시대의 표식들을 해석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 안, 밖에서 하시는 일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교회가 시행하는 분별의 과정에 참여할 때, 교회 내부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임을 기억하라. 즉, 교회의 모든 사람들(제사장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각 제사장의 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그렇다고 각 제사장이 제 멋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해서 모든 제사장들이 그 그룹에 완전히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인적 의견이나 선호도가 다를 때조차도 그 제사장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분별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확신함을 의미한다.
- 6)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교회가 되기로 결단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라. 그것은 현재까지 분별되어 왔던 것들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경험과 성경의 재해석을 통해 성령님이 보여 주실 놀라운 것들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에 기초하여 바꾸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다만, 과정 자체가 분열(양극화)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에게 반대하는 일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 7) 이러한 과정을 따르다 보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과거에 분별했던 것을 다시 분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약간의 수정/보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그 과정이 길어 질 수는 있으나 아무 결론 없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 8) 이 과정은 교회의 사역 역량을 소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폭시키기 위함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분별을 교회의 소명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것을 문제가 아닌 기회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교회로서의 우리의 자아의식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결론

미선얼 교회(Missional church)와 재세레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장소와 시간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소명에 헌신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리가 교회 회복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기를 원하신다. 영적 분별은 영적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기회이다.

함께 분별하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시간(chronos)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kairos)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교회에게 영구적으로 위임된 소명이다. 그것은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스에 합당하게”(엡4:1)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세대가 증명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 중의 또 하나의) 기회이다.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가 이 소명을 회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실” 것이다(엡2:14).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분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것은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분별의 필요를 직면하는 심장과 영혼의 증거를 통해 교회가 그만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어떤 의미에서 분별의 소명을 의식적으로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 이 시대에 신실한 메노나이트 교회가 되기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용기를 우리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 문서는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위임을 받아 토론되고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번역:셀브룩교회)

4. 존 하워드 요더-기독교윤리학

최근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메노나이트 신학자 존 하워드 요더에 대해 연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으나, 가능한 다음의 순서를 따라 연재글을 실고자 합니다.

1. 신학적 유산: 존 하워드 요더, 글을 시작하며 / 2. 존 하워드 요더-추도사를 통해 본 그의 인생 / 3. 존 하워드 요더-예수의 정치학 / 4. **존 하워드 요더-기독교 윤리학** / 5. 존 하워드 요더-평화학 / 6. 존 하워드 요더-그리스도론 / 7. 존 하워드 요더-교회론 / 8. 존 하워드 요더-그의 신학과 저술 / 9. 존 하워드 요더-죽음과 그 이후 / 10. 존 하워드 요더-교회와 상호책임 속의 존 하워드 요더

이 글은 존 하워드 요더와 그의 신학에 대한 연재 중 네 번째 글이다. 2013년 메노미디어 (MennoMedia)¹⁾는 요더의 성적 탈선에 대한 이슈와 관련하여 그의 책 출판을 중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였다. 오랜 숙고 끝에 요더가 남긴 유산의 “복합적인 긴장들”을 독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앞으로 발행되는 모든 책에 그의 성적 탈선 사실을 밝힌 서문을 실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2015년 1월 MQR(Mennonite Quarterly Review)은 약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미국 메노나이트, AMBS(Anabaptist Mennonite Biblical Seminary), 지방회 및 그가 속해 있던 교회가 고민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다.²⁾ 2015년 3월 22일 AMBS의 Sermon on the Mount 채플에서 피해여성들과 함께 슬퍼하고 죄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렸다.³⁾ 그리고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캔자스 시티에서 열릴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 총회(연례회)에서는 요더의 성적 탈선에 대한 이슈와 관련한 그간의 일들을 보고하고 다룰 예정이다. 메노미디어의 출판 방식을 따라, 앞으로 쓰는 이 요더 연재 글에는



김복기
(캐나다메노나이트선교사)

메노미디어의 출판방식에 따라 서문과 동일한 내용을 먼저 첨부할 예정이다.

존 하워드 요더 John Howard Yoder (1927-1997)는 20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메노나이트 신학자이다.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 그의 업적은 메노나이트 교회 전통 밖에 있는 독자들에게 아나뱃티스트운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요더는 오랫동안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헤럴드출판사는 화해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빚어진 일과 관련된 복합적인 긴장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가 권력과 지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는 요더와 그의 업적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요더가 이러한 성적 탈선행위의 장본인이었음을 독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요더의 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복잡한 이슈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며, 개인, 학자, 교회의 유산으로서 그의 업적을 보다 온전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평가하고, 씌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한다.⁴⁾

이제 본문을 말해야 할 것 같다. 한국 아나뱃티스트 저널에 요더 연재를 쓰기로 마음먹은 것은 18년 북미 생활을 정리하고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보냄을 받고 한국에 온 2013년 10월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과 관련이 있다. 어느 기독교 신문사에서 존 하워드 요더에 대한 기사를 싣고자 하는데 요더에 대한 글을 기고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더의 성추행과 관련된 기사를 싣는데 글을 싣거나 인터뷰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었다. 나의 대답은 “No”였다. 내가 “No”라고 대답한 이유는 존 하워드 요더의 성적 탈선에 대한 이슈가 불편했기 때문이 아

나라, 당사자의 입장이 명확히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요더가 죽은 지 십 수 년이 지났지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했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남은 숙제가 적지 않았다. 메노나이트 교회 안팎에서 저마다 추측과 평가를 내리고 있었지만, 당사자와 직접 관계되었던 사람들에게 의한 원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작 치리의 당사자인 지역 교회, AMBS, 인디애나 지역의 메노나이트 지방회,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Unfinished business) 일”⁵⁾을 다시 처리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었다. 요더의 책을 번역한 역자로서, 그리고 새롭게 소개되는 그의 출간되지 않은 글과 문서를 읽는 독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메노나이트 교인으로서 뚜렷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며 위의 관련된 교회와 기관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든 분변의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요더가 몸을 담았던, 지역 교회(Prairie Street Mennonite Church), 지방회(Central District Conference), 신학교(AMBS), 메노나이트 공식 논문지(MRQ), 그리고 교단교회인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Mennonite Church USA)는 새롭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신중하게 듣기로 결정하였고, 살아생전 요더가 밟았던 치리과정과 내용을 재점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분별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분변의 과정 동안 요더의 발간되지 않은 나머지 가능한 자료들을 John Howard Yoder Digital Library⁶⁾에 무료로 공개하기 시작했고,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는 인터넷은 물론 오프라인의 모임 속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발표를 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간의 과정과 요더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메노나이트 공식 논문지(MQR, 2015년 1월호)에 게재되었다.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동안 공개하지 않

있던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요더의 잘못된 실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다. AMBS는 성적 탈선을 포함한 그의 신학과 인생을 요더 신학강좌로 재조명해 나갈 것이다.⁷⁾

혹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더의 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에 대한 글을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요더의 탈선으로 그를 버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더의 잘못된 실험과 탈선에 대해 끊임없는 분변과 평가의 과정을 걷는 동시에, 요더의 천재적인 연구업적과 기독교 평화학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지식, 배움, 실천, 삶에 대해 이전 보다 더 큰 부담을 안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요더의 윤리학

요더의 윤리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더의 윤리학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이유는 우선 요더가 생존인물로 사상이 형성과정과 변화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고한 신학자로서 사후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그가 남긴 발자취, 강의록, 논문, 저서, 평전, 성적탈선을 중심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전 글에서 살펴본 요더의 역작 “예수의 정치학”이 그 윤리학의 기본 프레임을 형성해 주기 때문이며, 넷째로 그가 속해 있던 메노나이트 교회와 아나뱃티스트 역사가 그의 윤리학의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더의 윤리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선 간단하게나마 그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듯이 요더의 신학은 바젤 대학에서의 위대한 사상가와 교수들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마크 티슨 네이션은 오스카 쿨만, 칼 야스퍼스, 칼 바르트와 같은 석학과의 만남이 그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기록하고 있다.⁸⁾ 특별히 전쟁과 폭력에 대한 당대의 최고 신학자였던 라인홀

드 니버⁹⁾와 칼 바르트¹⁰⁾를 상대로 발표한 논문들은 요더의 평화학 및 윤리학의 입장을 드러낸 중요한 기록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요더의 윤리학에 영향을 끼친 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배경 곧 메노나이트이자 평화주의자로서의 배경이다. 짐머만 Zimmerman은 요더의 업적에 드러나 있는 신학적 토대는 그의 박사과정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¹¹⁾ 메노나이트 가정에 태어나 메노나이트로 성장하고, 메노나이트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평화를 핵심가치로 여기는 유럽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에서의 봉사활동을 하고, MQR을 비롯한 여러 아나뱃티스트 저널에서의 역동적으로 활동한 것은 그의 신학의 기본 토양이 어땠는가를 설명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무엇보다 고센 대학에서 그를 가르쳤던 헤롤드 벤더 Harold S. Bender와 메노나이트 평화신학자였던 가이 허쉬버그 Guy Franklin Hershberger로부터의 배움은 그의 평화신학과 교회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¹²⁾ 20세기 아나뱃티스트는 물론 교회사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헤롤드 벤더의 소논문 『아나뱃티스트 비전 Anabaptist Vision』¹³⁾의 세 가지 논점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는 제자도, 새로운 인류이자 새로운 공동체로서 교회, 사랑과 무저항의 윤리로서 평화)은 지금까지 아나뱃티스트의 핵심가치로 거론되고 있다. 『아나뱃티스트 비전』 저자, 헤롤드 벤더를 비롯하여 벤더 서클과 컨선 Concern 그룹에서 만나게 된 아나뱃티스트 학자들은 그에게 다가온 최고의 선물이기도 했다.¹⁴⁾ 이러한 배경 아래 형성된 요더의 기독교 윤리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요더의 윤리학은 개인 윤리를 넘어선 사회 윤리이다.
2. 요더의 윤리학은 그리스도의 윤리이며 곧 제자로서의 윤리이다.
3. 요더의 윤리학은 교회론에 근거한 교회 윤리이자 공동체 윤리이다.
4. 요더의 윤리학은 화해와 평화의 윤리이다.
5. 요더의 윤리학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한 윤리이다.

1. 요더의 윤리학은 개인 윤리를 넘어선 사회 윤리이다.

우리가 기독교윤리를 말할 때, 늘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도덕과 관련된 개인 윤리이다. 흔히 교회에서 설교되는 윤리에 대한 내용은 2014년 2월 11일 미주판 중앙일보 16면에서 신뢰도 설문 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언행의 불일치, 신앙을 매개로 부를 축적하는 것, 모범이 되지 않는 삶, 교회 세습, 영리에 치우치는 행위, 권위적 성향, 정치적 개입, 설교의 신뢰성 부족, 사회봉사 등과 같은 내용을 먼저 떠오르게 한다. 혹자는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이라는 개념 아래 성도덕, 술, 낙태, 생명윤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리기도 한다. 기독교 윤리라는 홈페이지¹⁵⁾에 기록되어 있는 주요주제를 살펴보면 자녀교육,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술과 담배, 낙태, 안락사, 자살, 사형, 전쟁, 이혼, 재혼, 피임, 동성애, 거짓말, 구제, 경제제도, 금욕주의 등의 항목을 기독교 윤리와 연결시켜 놓고 있다. 어떤 부분은 사회의 문제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 윤리로 접근하고 있다. 신학교에서는 크게 성서윤리, 개인윤리, 기독교사회윤리, 목회윤리, 세계윤리로 나누기도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과정에서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질문을 제목으로 잡은 요더의 책 『당신이라면?』의 추천사에서 개척자들 대표 송강호는 “‘당신이라면?’이라는 질문이 단지 자기 자신과 자기가족이 당하는 위협으로 좁혀진다면 이 질문의 대답과 그 영향력은 크게 감퇴할 것”¹⁶⁾이라고 일갈하며 개인윤리에서 사회윤리로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기에 전쟁과 폭력 관련 주제로 엮어진 요더의 책 『당신이라면?』은 개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폭력이란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윤리라기보다는 사회 윤리이다.

기독교 윤리를 사회윤리로 인식하기에 앞서 개인의 윤리(personal ethics)로 인식하는 이러한 상황은 한국뿐 아니라, 서구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리처드 마우(Richard Mou)는 비록 최근의 동향

은 조금 달라지고 있지만, 담배, 알코올, 춤, 영화 및 오락 관련 금지 목록과 더불어 개인윤리의 금지 항목에 대해 언급하였다. 물론 조금 긍정적인 목록으로 강조되고 있는 희생적 섬김, 결혼제도, 직업, 양육 및 공정성 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고, 기독교적 사명으로써 좀 더 폭넓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죄수, 사회적 슬럼, 사회정의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지적하였다.¹⁷⁾

요더의 독자들은 그의 기독교 윤리학을 대할 때, 개인윤리를 넘어 사회 윤리임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윤리나 도덕의 기준 자체는 한 사람에게 의해 결정될 수 없는 사회적 산물이며, 사회적 맥락에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사회윤리일 수밖에 없다. 탁월한 요더 입문서를 저술한 마크 티슨 네이션(Mark Thiessen Nation)은 그의 책에서 요더의 『예수의 정치학』을 요약하면서, 기독교사회윤리학 분야에 새로운 판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소개하였다.¹⁸⁾ 토론토 북쪽에 위치한 틴데일 대학원 교수인 크레이그 카터는 요더의 사회 윤리를 기독교론과 종말론과 교회론에 근거한 사회윤리로 풀어 설명하였다.¹⁹⁾ 크레이그 카터는 『예수의 정치학』을 재분석하면서 요더의 윤리학을 그리스도론에 근거한 기독교평화윤리, 특히 성경에 근거한 비폭력 기독교 사회윤리라 명명하였다. 요더의 윤리학은 개인 윤리를 넘어선 사회 윤리이다.

2. 요더의 윤리학은 그리스도의 윤리이며 곧 제자도의 윤리이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더의 윤리학은 그리스도의 윤리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윤리이다. 『예수의 정치학』은 이미 이전 글에서 소개하였으므로 다시 살펴보지 않겠지만, 요더가 기존에 존재하는 “주류” 윤리학이 사회윤리학의 기준으로서 예수를 규범으로 보지 못하는 여섯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논박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규범으로 제시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누가복음을 통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가 경험한 시험, 메시아 선언과 그 내용, 그의 가르침과 모범으로서의 삶,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제시한 것은 여러 주제가 아니라, 요더의 유일한 논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더의 신학은 그리스도 신학이며, 그의 윤리학은 그리스도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진영의 사회질서에 기반을 둔 우리의 정치적 가설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킴으로써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예수로 가져왔다”²⁰⁾는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표현처럼, 요더의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 된다. 물론 그의 이러한 시도는 하나의 신학적 선언으로 그의 여러 저작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요더의 그리스도론과 신학적 방법이 올곧이 드러나 있는 *Preface to Theology*의 서론에서 스탠리 하우어워스와 알렉스 사이더는 “요더의 모든 글은 그의 그리스도론적 관점에 의해 규정된다”고 밝혔다.²¹⁾ 더 나아가 이 그리스도는 단순히 강단에서 교육으로 가르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임을 밝히고 있다. “요더에게 있어서 진짜 예수란 태어나고, 사시고, 가르치시고, 세리와 창녀와 함께 먹고 마시고, 문둥병자와 절름발이와 눈먼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유대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대적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를 말한다. 즉 진짜 예수란 그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어딘가에서 읽고 발견한 그런 예수가 아니다. 비록 그가 역사적 예수인가 탐색해보고 싶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더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곧 역사적 예수다.”²²⁾ 책의 본문에서 요더는 사도신경, 복음서, 바울의 사상과 바울 서신, 그 외 히브리서와 요한의 편지 등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철저히 연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²³⁾ 여러 교회사와 족적을 같이 해온 그리스도론을 신조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초청하였고, 조직신학적 주제로서 자리하고 있는 왕, 제사장, 예언자로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였다.²⁴⁾ 물론 그의 신학을 윤리학으로 치환할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으나, 그의 윤리학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론에 대해 철저히 연

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여러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더의 그리스도론은 그의 사회윤리학의 근원임을 상술”하였다. 그는 제자도의 개념이 그리스도론에서 연유하며,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윤리와 제자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제자도는 요더 윤리학의 핵심 개념에 상응하는 것”²⁵⁾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더의 윤리학은 그리스도의 윤리이며 곧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제자도의 윤리이다.

3. 요더의 윤리학은 교회론에 근거한 교회 윤리이자 공동체 윤리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정치적인 공동체로 이 땅의 권세와 정면 대립하는 대안 공동체이자 대안 사회이다. 이는 아나뱃티스트의 핵심 가치이자 새 인류, 새 창조, 새 세상인 교회에 대한 이해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더 신학의 핵심 키워드인 교회를 빼놓고 그의 윤리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빼 놓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리스도인의 알맹이 없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독교의 삶이 율림이 없는 것은 어찌면 매주 주일예배에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삶을 빼놓고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생각 없는 행위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요더의 윤리학은 그리스도론과 제자도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론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나 성직자의 유무로 다가온다. 그러나 교회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실제로 성경적 교회를 삶속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나, 성직자의 유무에 구애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나뱃티스트 교회는 스스로를 고백교회이자 신자들의 교회로 자처한다. 이는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가 곧 자신들의 구세주이며,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생이시며, 모범이시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아나뱃티스트들에게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다. 이는 헤롤드 벤더의 재세례신앙의 비

전에 잘 요약되어 있다.

『근원적 혁명』²⁶⁾과 *The Royal Priesthood*²⁷⁾에 소개되어 있는 같은 연설문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글에서 요더는 교회를 대조사회로 규정하였다. “현대 에큐메니컬 흐름에서 교회란 증언공동체, 섬김의 공동체이며 자발적이며 가시적인 교제 공동체를 뜻한다. 이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주변 사회와 전혀 다른 존재라는 말이다. 따라서 교회는 주변의 사회와 같지 않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개념은 교회의 존재, 구조, 사회학이 다른 사회 구조와 전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의미이다.”²⁸⁾ 이러한 대조사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다른 노력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²⁹⁾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며, 보다 성서적이다.

요더의 교회론을 신자들의 교회론으로 잘 요약한 크레이그 카터의 말을 들어보자. “요더에게 있어서 교회는 우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새로 창조된 새 인류다. 둘째로 새로이 창조되고 운영되는 공동체에 의해 독특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존재이다. 세 번째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전조다.”³⁰⁾ 새 사회, 대안사회로서 교회는 풍요롭고 온전한 사회 윤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회 윤리는 이미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의해 발현되는 교회의 실천윤리이기도 하다. 요더는 이 교회의 모습을 『교회, 그 몸의 정치』³¹⁾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실현해야 할 다섯 가지 실천 사항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 위에서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설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를 사회윤리를 가진 존재로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사회윤리로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³²⁾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한국교회의 상황으로 볼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큰 숙제이다. 개인 윤리에 얽매어 있어 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공동의 윤리는 너무나 동떨어진 신학적 과제로

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영웅이 아닌 순교자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하며,³³⁾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4. 요더의 윤리학은 화해와 평화의 윤리이다.

한국에서 평화학은 여전히 낯선 학문이다. 반면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에게는 평화학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그들의 정체성으로 자리하고 있다. 메노나이트 교회가 1935년 퀘이커와 형제교회와 더불어 역사적 평화교회를 시작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양차 대전 한가운데에서 전쟁을 거부하고, 비폭력과 무저항을 외친 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한국기독교는 역사의 질곡 속에서 화해와 평안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외치기는 하였으나, 국가와 종교 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를 한 개인의 안녕과 축복,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종교에 머물러 있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사회와 역동적으로 관계하는 일로써 구제와 외지 선교에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만들었다.

이미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요더는 기독교윤리를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윤리로 우리를 안내한다. 요더에게 있어서 그 사회윤리의 주된 주제는 폭력, 전쟁 그리고 평화였다. 『어린양의 전쟁』³⁴⁾에서 요더는 폭력과 비폭력의 문제를 다루었고, 여러 소논문에서 다루었던 주제인 정당한 전쟁과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서 갈등과 갈등해결을 다루었다. 또한 『 그럼에도 불구하고』³⁵⁾에서는 평화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주장을 정리해 놓았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법적 질문인 『당신이라면?』³⁶⁾을 통해 요더는 응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잘못된 전제로 규정하거나 중요한 전제를 놓치고 있다고 심층 분석한 후, 가능한 일곱 가지 대응을 제시하였다.

요더의 윤리학은 평화학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그는 아

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의 핵심 가치를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였다. 그래서 혹자는 존 하워드 요더를 평화학의 대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아나뱃티스트 교회에서는 요더가 평화학의 이론가라면, (그에 의해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존 폴 레더락과 채드 마이어는 요더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평화실천가라 할 수 있다. 존 폴 레더락은 『어린양의 전쟁』에 기록된 내용 즉 갈등신학을 좀 더 발전시켜, 갈등전환학 전문가 및 세계적인 평화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책 『갈등전환』과 『화해를 향한 여정』은 갈등, 조정 및 화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많은 이들이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윤리는 학문으로서 도덕은 실천 및 경험으로서 자리한다. 요더의 윤리학이 실천의 토대가 되는 이론이라면, 화해와 평화는 학문뿐만 아니라 운동으로 나타나 실천으로 꽃피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화해와 평화는 다차원이다. 개인의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학교, 기관, 회사, 사회, 국가, 세계의 관계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슈이다. 요더에게 있어 화해와 평화의 윤리라 함은 결국 그리스도의 비폭력의 윤리이며 결국 그것이 바로 어린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십자가 윤리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요더의 윤리학은 화해와 평화의 윤리이다.

5. 요더의 윤리학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한 윤리이다.

유명한 리처드 니버의 저술서 『그리스도와 문화』의 다섯 가지 유형분류에 따르면 메노나이트는 분파주의(sectarian)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요더의 윤리학은 분파주의나 이단으로 몰린 교단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윤리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이 세상 곧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화해시키러 오셨다는 고백은 그 사랑의 윤리, 십자가의 윤리의 대상이 곧 세상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곧 교회윤리가 일차적으로는 안으로의 윤리이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차원에서 교회 윤리는 밖으로 향한 윤리여야 한다. 사회윤리의 실행으로서 기독교 평화주의는 영역 또한 교회 내에 머물러 있을 수 없

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 윤리는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적용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 증언해야 한다.

이미 아논 바와 같이 요더의 윤리학을 정리한 학자들의 노력은 적지 않다. 크레이그 카터는 자신의 논문을 발전시킨 그의 책 결론부에서 요더의 사상을 사회윤리와 연결시켜 정리하였다. 그는 요더를 바르트에 영향을 받은 아나뱃티스트 사회윤리학자, 탈자유주의 사회윤리학자, 신학적으로 철저한 정통 윤리학자, 탈근본주의적이며 탈상대주의적인 사회학자, 복음주의적 사회학자, 유대주의 기독교 사회학자, 그리스도중심의 삼위일체를 주장한 사회학자, 성경적이며 에큐메니칼 운동에 헌신한 사회학자로 정의하였다.³⁷⁾ 기독교 윤리를 설명함에 있어 요더 자신은 『근원적 혁명』에서 산상 수훈을 회개의 윤리학, 제자도의 윤리학, 증언의 윤리학, 성취의 윤리학, 완전한 사랑의 윤리학, 능가의 윤리학, 화해의 윤리학으로 설명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을 보다 폭 넓게 보았다.

요더의 윤리학을 이해할 때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으나, 연재의 글쓴이로 나는 그의 윤리학을 대략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그리스도의 윤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고난(십자가), 죽음, 부활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실천하는 규범이자 모델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교회의 윤리는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쉽지만 않은 이 글을 쓰는 내내, 내 마음 속에는 메노미디어의 글귀와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아라!”(마태복음 23장 3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나지 않았다. 요더의 글과 가르침 그리고 삶도 이 말씀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이에게도 그 상황의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그러기에 윤리의 문제는 그 누구의 문제이기 이전에 글을 읽는 독

자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독자가 속한 공동체의 숙제이며,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라 여겨진다.

또한, 이 글을 쓰면서 요더를 읽는 한국 독자와 한국 교회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가슴 속에 따리를 틀고 떠나지 않은 질문을 만나게 되었다. 그 질문은 과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와 속한 공동체는 요더를 치리했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정리되지 않은 (Unfinished business) 일”로 받아들여 이를 재조명하고 있는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가 걷는 길을 진지하게 걸어갈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다.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론적 기독교 윤리가 스스로의 연약함과 탈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처럼, 과연 우리도 기독교 윤리가 그 자체를 스스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마태복음 7:21~24)

후주 -----

- 1) 미국과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출판
- 2) Mennonite Quarterly Review 2015년 1월호를 보라.
- 3) <https://www.ambs.edu/news-events/reunion-listening-confessing.cfm> 2013년 7월 25일 AMBS 총장의 “정리되지 않은 일(unfinished business)”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은 후, AMBS는 요더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아픔을 인정하는 공식적 예배와 의식을 준비하였다. 2015년 3월 21, 22일 양일간, AMBS와 피해여성들을 포함한 이전의 리더,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피해여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애도하고, 피해 여성들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캠퍼스 건물 안, 요더에 의해 성추행이 행해진 공간을 돌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기사는 <http://mennoworld.org/2015/03/23/news/ambs-on-abuse-we-failed-you/> 를 참고하라.
- 4) 메노미디어 및 요더의 책에 실린 원문의 번역.
- 5) Sara Wenger Shank의 AMBS 홈페이지 “Revisiting the Legacy of John Howard Yoder” 글 참고.
- 6) <http://replica.palni.edu/cdm/landingpage/collection/p15705coll18>
- 7) AMBS의 Gayle Gerber Koontz 교수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2개월 동안 열린 요더 치리 그룹에 참여하였고, 2002년 3월 7일부터 9일,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에 위치한 노틀담 대학에서 열린 요더 컨퍼런스에서 요더의 성적 탈선 과정을 보고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AMBS 요더관련 강좌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Anabaptist Short Course: Engaging John Howard Yoder’s Theology Today”라는 주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 8) Mark Thiessen Nation, John Howard Yoder, WM.B. Eerdmans, 2006, 18-19.
- 9) Craig A. Carter, The Politics of the Cross, Brazos Press, 2001, 41~47.
- 10) Carter, 위의 책 61~90.
- 11) Earl Zimmerman, Practicing the Politics of Jesus: The Origin and Significance of John Howard Yoder’s Social Ethics. Cascadia Publishing House, 2007. 143.
- 12) Nation, 14.
- 13) 헤롤드 벤더, 김복기 옮김, 『재세례신앙의 비전』, KAP, 2009.
- 14) Nation, 위의 책 12~21.
- 15) <http://www.oldfaith.net/02ethics.htm>
- 16) 존 하워드 요더, 임형권 옮김, 『당신이라면?』, 대장간, 2011, 16.
- 17) Mouw, Richard J.; Yoder, John Howard, Evangelical ethics and the Anabaptist-Reformed dialogue. Journal of Religious Ethics, 17.2 Fall 1989, p121-137.
- 18) Nation, 110.
- 19) Carter, 위의 책.
- 20) Stanley Hauerwas, When the Politics of Jesus Makes a Difference, Christian Century, October 13, 1993, 984.
- 21) John Howard Yoder, Preface to Theology, Brazos Press, 2002. 15.
- 22) 위의 책, 25.

- 23) 위의 책, 1~5장.
- 24) 위의 책, 6~15장.
- 25) Carter, 위의 책, 136.
- 26) 존 하워드 요더, 김기현 · 전남식 옮김, 『근원적 혁명』, 대장간, 2011. 133~149.
- 27) John Howard Yoder, *The Royal Priesthood*, Eerdmans, 1994. 168~180.
- 28) 『근원적 혁명』, 134.
- 29) 『근원적 혁명』, 135.
- 30) Carter, 위의 책, 192.
- 31) 존 하워드 요더, 김복기 옮김, 『교회, 그 몸의 정치』, 대장간, 2011.
- 32) Carter, 위의 책, 205.
- 33) 스탠리 하우어워스, 982.
- 34) 존 하워드 요더, 서일원 옮김, 『어린양의 전쟁』, 대장간, 2012.
- 35) John Howard Yoder, *Nevertheless*, Herald Press, 1992.
- 36) 존 하워드 요더, 임형권 옮김, 『당신이라면?』, 대장간, 2011.
- 37) Carter, *The Politics of the Cross*, 225~234.

108쪽에서 계속

이 책을 읽을 때, 난 독자 여러분들이 예수, 성서, 속죄, 폭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다섯 가지 주제를 마이클이 어떻게 다루는지 특별히 주의 깊게 보기를 바란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 ‘예수가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까지. 결국, 우리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로 보는 지구에서 오늘 아침 깨어났으며, 똑같은 이 사람들이 폭력이나 보복적 폭력을 서로에게 반복적으로 행사하게끔 하는 구약의 구절들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낡은 폭력의 순환 속에서 좌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마이클 하딘 같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수가 이끄는 삶』을 읽을 필요가 있다.

『예수가 이끄는 삶』 추천서문

브라이언 D. 맥클라렌

...『예수가 이끄는 삶』을 읽는 것은 마치 마이클과 여행을 함께 떠나는 것 같다. 길을 달려 나감에 따라 중요하고 심오한 대화에 빠져들지만, 강의실에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지혜로운 친구와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예수가 이끄는 삶』은 다섯 가지 주제로 독자를 매료할 것이다.

물론 제일 첫 번째는 예수이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가 내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분을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때 마다 내 마음은 사로잡혀 버린다. 장이 넘어갈수록, 난 복음서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비유들, 그가 주는 가르침들, 그런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신선한 이해를 얻고 있었다. 이 주제만으로도 나는 독자로서 충분한 보상을 얻었다.

두 번째로, 나는 성서에 대한 마이클의 접근방식에 감사했다. 성서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로 끔찍한 몇몇의 일들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성서가 어딘가에 있는 박물관 속에 전시되어 있어야 행복해 할 것이다. 하지만, 마이클은 우리에게 성서가 어떻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마이클은 특히나 중요하며 논쟁을 초래하는 신학적 이슈, 즉 속죄이론을 말하고 있다. 복음주의적 공동체들은 특히나 최근 속죄신학을 새로이 붙잡고 싸우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단 심문관의 분노를 가지기도 한다. 마이클은 왜 이런 주제가 중요한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믿는 것에 기반을 둘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기반을 둔 강

력한 영향들을 가지는 그 이슈에 더욱 심층 있게 다가가도록 그 주제에 대한 신선한 접근방식을 가져다준다.

네 번째로, 마이클은 21세기의 기독교가 다른 세계종교와 함께 더욱 성숙하고 탄탄하며 윤리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폭력과 평화구축의 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칼과 창으로 행해진 폭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법화했다는 것과 최근 조상들이 총과 대포로 행하는 폭력을 정당화하고자 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핵폭탄과 생물학 그리고 화학무기가 존재하는 세상, 그리고 아직까지 상상도 못할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대량살상무기들을 손에 넣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과 폭력의 문제는 전례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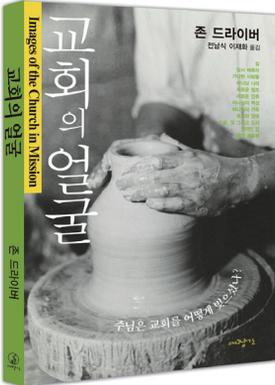
영어나 아랍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는 21세기 지금까지 구원보다는 마치 위험한 무기이자 파괴의 근원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것이 마이클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씨름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성서적 연구들 및 다른 분야의 연구들로부터 나온 수많은 자료들과 더불어, 르네 지라르(Rene Girard)의 주요한 저작을 이 주제에 쏟아낸다. 다시 말하지만, 이 주제만으로도, 그 책은 독자의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네 개의 주제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폭력적인가? 혹은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선택적으로 폭력적이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관대하신가? 혹은 잠시 동안 관대하시지만 결국에는 폭력적이신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나님은 고통을 부여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부여해야만 용서하실 수 있는가? 자신의 적을 물리치시고 영원히 정죄하실 계획을 세우는 전사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모든 탕자들이 집으로 돌아와 환영받아야만 만족하실 평화의 하나님인가? 마이클은 용기 있게 이런 문제들을 대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도움을 준다.

→ 106쪽 아래로 계속

교회의 얼굴

존 드라이버 지음 / 전남식 이재화 옮김 / 대장간



성서에서 찾은 12가지 교회의 이미지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교회를 토대로 한다고 설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실재요, 만물의 회복을 향한 인류 역사의 시험장입니다. 드라이버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교적 목적에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12가지 성서적 이미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권력과 대화하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이 지닌 의미를 반영합니다. 저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랜 기간 가르치면서 순례자 이미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백성됨, 변혁 이미지를 탐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교회가 존재의 이유에 일치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불러 넣습니다.

저자는 교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강의실에서, 개인의 영적인 발돋움을 위해, 그리고 소그룹 토론을 위해 쓴 탁월한 연구다. _ 윌라드 M. 스와트리, 『동성애』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의 저자

오직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됨으로써만 설명할 수 있는 기독교 제자도로의 강력한 도전을 주는 책이다. _ 윌버트 R. 웅크, 풀러 신학대학원 교수, 『선교의 새로운 영역』의 저자

역사적 콘스탄틴을 경험하지 않고도 충분히 콘스탄틴체제의 폐해를 답습하고 있는 한국교회,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주목하고 읽어야 할 책이다. 동시에 진정한 모습의 미션얼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그 이미지를 어디로 부터 얻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값진 책이다. _ 지성근 목사, IVF 일상생활사역연구소소장

교회가 왜 선교하는 곳인지, 이 책은 그 교회의 얼굴을 만나도록 돕는다. _ 이진오 목사, 더함공동체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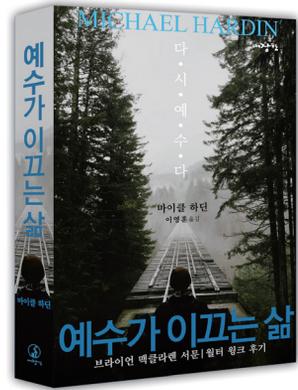
예수가 이끄는 삶

마이클 하딘 지음 / 이영훈 옮김 / 대장간

목적이 이끄는 복음과

그리스도가 이끄는 복음의 선명한 대조

마이클은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에게 모방이론과 그 적용을 분명하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있고 실질적인 옹호자다. _르네 지라르



이런 훌륭한 연구에 걸맞은 마땅한 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예수가 이끄는 삶』은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의 초기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로 이어지는 관련성에 대해 알려져 있는 것들을 위엄 있게 통합한 것에 다름 아니다. _월터 윈크(Walter Wink)

『예수가 이끄는 삶』은 예수의 마음에 있는 단순한 비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모든 자기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변영설교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일깨워 준다. 당신의 삶을 찾고자 한다면 당신의 삶을 거저주어야 한다. 이것은 아주 귀중한 진주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초대이며, 우리가 쫓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것은 버려야 한다. _웨인 클레어본

예수를 따르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서구 기독교가 얼마나 서구(특히 미국) 문화의 이상적 가치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깨닫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통찰력 있으며 학적이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통해, 마이클 하딘은 그리스도가 이끄는(‘목적이 이끄는’이 아닌) 원래의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주목할 만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와 대조되고 있는지를 논증하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서구화된 복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가 이끄는 삶』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아울러 그런 복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아직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_그레고리 보이드(Gregory Boyd)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히즈키아스 아세파 지음 / 이재영 옮김 / KAP

경쟁적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평화와 화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신학, 정치학, 사회심리학,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했다.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쓰였지만 오늘날의 국내외적 갈등과 분쟁상황에서도 매우 유익한 평화와 화해의 기본 안내서가 될 것이다. 히즈키아스 아세파 박사의 책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대립과 경쟁의 사회 구조와 문화속에서 쉽게 나타나는 한정적이고 왜곡된 평화와 화해의 이해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혜안을 제시한다.

<추천의 글>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매우 훌륭한 기초 작업이다. 아세파 박사의 접근은 오늘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평화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 _ 셸리 팀멜 / 갈등전환훈련센터 소장

비록,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반드시 읽혀야 할 책이다. 평화에 대해 꿰뚫어 보는 아세파 박사의 생각은 우리의 사고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작은 공헌이다. _ 파울 와흐르하프티그 / 해결센터 원장

KAF(www.wkaf.net) 관련 웹사이트 주소

교회 www.sbrookchurch.org (셀브룩메노나이트한인교회)

www.gracepeace.org(은혜와평화교회) ■ www.facebook.com(꿈이있는교회)

www.jvchurch.onmam.com(예수촌교회) ■ www.facebook.com(평화누림교회)

단체 www.kac.or.kr(KAC) ■ www.narpi.net(NARPI동북아평화훈련원)

www.kopi.or.kr(한국평화교육훈련원) ■ www.connexus.co.kr(커넥서스)

www.kapbooks.com(KAP) ■ www.daejangan.org(도서출판 대장간)

www.wcfgw.nayana.kr(개척자들) ■ www.Reconcilian.com(리콘실리아시안)

▶ 후원하실 단체를 안내합니다

개척자들 - 비소득공제용 : 국민은행 068801-04-014046 (사)개척자들

- 소득공제용 : 국민은행 093401-04-124532 (사)개척자들

ReconciliAsian(디아스포라 화해자들)

- 비소득공제용 : 씨티뱅크 892-01467-259-01 허현

KAC 스탠다드차타드 425-20-403665 한국아타맷티스트센터

KOPI 국민은행 992801-01-260930 박윤서(한국평화교육훈련원)

꿈이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농협 335-0007-6901-83

KAF 재정 사용 내역 (2015. 1. 1~2015. 3. 31)

이월 667,440

수입 360,000

150,000(꿈이있는교회) 60,000(예수촌교회)

60,000(은혜와평화교회) 90,000(평화누림교회)

지출 1,514,600

720,000(8호 제작) 184,600(저널 발송비) 610,000(목사안수식)

잔액 -487,160

※ KAF 후원금과 회비(정회원)는 저널 발행과 KAF의 선교사업에 사용됩니다.

우체국 311639-01-004603 배용하(KAF)